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제236호

경희대학교

충동문회보

KYUNG HEE UNIVERSITY ALUMNI NEWS

가을꽃

정호승 시인이 동문들에게 드리는 시 선물

이제는 지는 꽃이 아름답구나
언제나 너는 오지 않고 가고
눈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시구나

진리에 굶주린 사내 하나
빈 소주병을 들고 서 있던 거리에도
종소리처럼 낙엽은 떨어지고
황국도 꽃을 떨고 뿌리를 내리나니

그동안 나를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고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물깊은 밤 차가운 땅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꽃이여

정호승 시인은 국어국문학과 68학번입니다.

나를 이긴 것은 사랑 이었다



때로는
댄디하게



때로는
시크하게

남자의 Face Style을 완성하는 3D입체 면도
필립스 센소터치 3D

sense simplicity



‘세계적 명문대학’ 한마음으로 한걸음씩...

지면안내

2-3면 특집 총동문등산대회

4면 특집 경희가족 바둑축제



11월 6일 열린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에는 100여명의 경희인이 대국에 참가해 바둑실력을 뽐냈다.

5면 기획 경희문인 만나보기(2)

6면 특집 매그놀리아 스토리

12-13면 동문포커스

소식을 기다립니다

※ 산하 동문회 모임 소식, 동문 동정, 자유주제의 칼럼 등을 총동문회 사무처(전화 02-744-8854~6, 이메일 khua2001@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평가 종합대학 5위 기념 총동문등산대회가 지난 10월 23일, 도봉산에서 개최됐다.

파란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 속에 열린 제6회 총동문등산대회에는 경산회(법대동문산악회), 고양시 동문회, 분당수지동문회, 12회 동기회, ROTC동문회, 여성동문회,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등 약 1,200여명의 경희인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열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향해

하일성(체육67, 스카이엔터테인먼트 회장) 체육대학동문회장의 사회로 오전 9시 30분부터 개회식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 모교 조인원 총장, 총동문회 한명남(정외63, 모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자문위원장, 김성호(신방

65, (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수석부회장, 정재규(치의68, 정재규치과의원 원장) 수석부회장, 모교 오택열 국제캠퍼스 부총장 등 총동문회 임원과 모교 인사가 참석했다. 더불어 이종완(체육70, Lyle Pacific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시애틀-워싱턴주 동문회장이 미국에서 참석해 동문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김성호 수석부회장은 “등산대회가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모교의 구성원들까지 늘 자리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이 자리에 모이신 경희가족 모두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한마음으로 뭉쳐 모교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모교 조인원 총장은 “등산대회를

통해 많은 동문님들을 직접 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60주년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모교가 큰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은 조인원 총장과 함께 각 단체별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준비된 간식을 가지고 용어천 계곡과 우이암을 거쳐 보문능선으로 하산하는 3시간 코스의 산행을 시작했다.

◆시상과 행운권 추첨 이어져

산행과 점심식사 이후 시작된 시상식에서는 총동문회와 모교에서 마련한 상품이 여러 동문들에게 제공됐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한 단체에게 주어지는 단체참가상은 법과대학동

문회, 체육대학동문회, 고양시동문회, ROTC동문회, 분당수지동문회,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에 전달됐으며 △고령 동문에게 주어지는 장수상 △멋진 의상을 선보인 동문을 선발한 의상상 △최다 가족이 함께 참석한 동문에게 제공되는 화목상 △최연소 동문에게 주어지는 최연소동문상 등 다채로운 시상이 이뤄졌다.

시상과 더불어 디지털카메라, 닌텐도 게임기, 금수저, 고급도자기, 홍삼농대보진액, 건강검진권 등 다양한 경품의 주인공을 뽑는 행운권 추첨이 열려 많은 동문들이 기쁨을 누렸다.

행운권이 당첨되지 않은 동문들 또한 총동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기념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끽했다.

會 說

등산 및 바둑대회 성료에 감사

지난달 23일 도봉산에서는 제6회 총동문회 등산대회가 열렸습니다. 1,200여명의 경희가족들이 온갖 색깔로 화려하게 수놓인 도봉산의 풍경 속에 풍덩 빠져, 가을의 정취를 몸과 마음으로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특히 올해의 등산대회에는 모교가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국대학 7위, 종합대학 5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참가해주신 동문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드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 분위기였지요. 모교에서도 조인원 총장을 비롯,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등산대회를 해

마다 갖는 예는 우리 말고 달리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문들의 모교사랑이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제1회 경희가족 바둑대회가 개최되었지요. 첫 대회였는데도 선수 및 참관자 1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모교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선수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특히 최강자조인 ‘평화조’에서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황정찬 선수(아마5단)가 우승을,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최준석 선수(1급)가 5등을 차지해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이들 두 선수에게는 총동문회 장학금이 각 200만원씩 지급됐습

니다.

총동문회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이를 정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대회부터는 참가 자격을 동문과 동문가족은 물론 경희학원 전 구성원으로 확대합니다. 개최 시기는 3월 1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한편 모교는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제29주년을 맞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10 Peace BAR Festival’을 열었습니다. 1981년 우리 모교의 주도로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갖는 학술제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였습니다.

모교 조 총장은 학술회의 환영사에서 “지난 28년 간 전쟁과 평화, 과학과 문명, 인간과 윤리 문제를 다뤄 왔다”고 회고하고 올해의 주제와 관련 “경희가 설립 이래 쌓아온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더 나은 인류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및 국내 대학들과의 경쟁력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학문과 교육의 성숙성, 대학으로서의 지구적 소명의식에서 날로 그 위상을 높여가는 모교에 동문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와 성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인원 총장과 분당수지동문들의 합창 파이팅!



▲총동문등산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김성호 수석부회장

1,200여 동문 도봉산 정상서 경희 미래를 건다

동행취재기

아름다운 동행

젊은 후배는 백발 선배의 배낭을 들어 주고, 선배는 가래떡을 떼어 나눠주고

너무 짧은 하루

경희가족들 화기애애한 만남으로 시간 가는 줄 몰라

조인원 총장 인기

“총장님, 여기요!” “저희랑도 같이 찍으셔야죠!” 동문들에게 최고의 인기모델

역시 명 MC

‘명 해설가’ 하일성 동문 사회에 웃음이 끊일 줄 몰라

일일(一日)기자가 총동문등산대회에 동참한 것은, 스케치기사를 써 달라는 어느 한 은사의 부탁 때문이었다. 물론 기자 역시 경희대 동문이고 경희대에서 학문연구에 온갖 힘을 쓰고 있지만, 웬지 총동문등산대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음을 우선 고백해야겠다. 기자가 아는 동문을 얼마나 만날까, 동문들 속에서 혼자 산을 오르지 않을까 등등의 걱정은, 그러나 기우였다. 도봉산으로 가는 찾길이 순조로웠던 것은 일종의 좋은 예감이었을까. 도착하자마자 1천여 명의 경희대 동문들이 서로에게 밝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선후배와 조우하여 그야말로 왁자지껄 화기애애. 기자도 아끼던 후배 부부를 하나 만났다. 집결지를 둘러싼 도봉산의 붉고 노란 단풍은 경희인의 반갑고 놀란 표정을 닮아 있었다.

하일성 동문의 사회는 힘이, 그리고 김성호 수석부회장의 개회사는 자신감이 넘쳤다. 조인원 총장님의 인사말은 자긍심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총장님께서 4년 전의 총동문등산대회에서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웅장하고 광대한 비전의 말씀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음을 기자를 비롯한 1천여 동문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국종합대학순위 5위, 이것 역시 과정이라는 요지의 말씀에 대해서 박수가 4-5차례 나오는 것은 일종의 각오이자 화답이었다. 한마음이었다. 숙연한 표정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간단하리라 예견했던 기념촬영의 시간이 길어졌다. 오늘날만큼은 조인원 총장님이 학교를 상징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30회나 사진을 찍으셨다. 사진 한 컷에도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이 들어있는 것이다. 조 총장님은 학교가 나아가갈 방향을 보여주는 모

델이었던 것이다. 동문서주 웃음웃음. 사진 찍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조 총장님의 마음은 아마도 동문들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었을 것이다.스피커에서는 서원교-우이암-보문능선을 지나는 3시간 코스임을 울려퍼졌지만, 삼삼오오 아니면 몇 십 명씩 모여 사진을 찍고 악수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한쪽에서는 언제 올라갔다 올라 하는 격정의 소리까지 들렸다.

이제 산행이다. 진행요원이 해 맑은 미소를 지닌 학생기자를 붙여줬다. 예우이리라. 삼사십 분쯤 올랐을까. 이 산행은 굳이 정상 등정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기자는 잠시 다리를 쉬었다. 마침 60년대 학번과 2000년대 학번이 함께 쉬는 묘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함께 온 것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그리 서먹서먹하지도 않았다.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학번을 맞춰보고, 선배는 가져온 가래떡을 툇 떼어 나눠주고, 후배는 맛나게 먹고... 이 모습이 왜 이리 정겹게 느껴질까. 경희인이라는 것, 그것은 나눔이고 마음이고 함께 함이리라. 하나 더. 짐이 무거우면 잘 주세요. 후배다운 자세이다.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우이암까지는 올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앞섰다. 우이암. 그 위에서 아래를 보니 알록달록한 단풍이 하늘을 한껏 이고 있고, 산자락이 그 형세를 갖추고 꿈틀대며 뻗은 모양새는 그야말로 경희대의 등룡문에 사는 용이 막 승천하는 모습이었다. 경희가 웅비하려고 하고 있다. 나무는 나무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바람에 날려 흔들리면서 태양의 빛에 반짝이는 품, 그것은 그야말로 혼연일체로 경희정신이었다. 성숙한 가을산. 기자는 거기에 경희정신을 보았다. 이 벽찬 환상이 비단기자 개인만의 경험이었을까. 등장하는 모두가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경희는 하나다. 미래다.

내려오는 길에서 몇몇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 중 하나. 백발의 동문이 자신의 청춘시대를 말하면서 회기동을 주름잡던 이야기였다. 기자가 그 동문을 봤을 때 거기에는 머리가 검게 되고 주름이 사라진 싱싱한 젊은이가 있었다. 총동문등산대회는 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오르고 시간을 오르고 추억을 오르는 대회였다. 한 경희인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기확인이었다. 기자 역시 이름 모르는 계곡에서 잠시 쉬면서 까마귀 소리, 부러진 나무, 흐르는 땀, 주변의 웅성거림을 놓고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자기를 잠시 잊었다. 자기정화였다.

산을 내려와 점심을 먹고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에 참여했다. 단체상, 감투상, 장수상, 최연소상, 화목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박수상 등등. 모두에게 줄 상을 대표로 받은 사람들이 신났다. 기자는 하나도 당첨되지 않았지만, 함께 신났다. 기자 역시 땀속까지 경희인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니 조 총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소통과 화합이 떠올랐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소통과 화합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속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이 표어가 서서히 마음 속에 각인되고, 기자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그려졌다. 도봉산은 산 바깥으로 길을 뻗어놓고 있었다.



강 정 구(국문8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바둑판에 새겨진 모교 사랑, 첫판부터 명승부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가 지난 11월 6일, 모교 네오르네상스관에서 100여명의 경희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바둑축제는 동문과 가족, 교수, 교직원, 재학생 등 모든 경희인이 참여한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경무기우회(ROTC), 고창기우회(법과대학), 돌사랑회(교직원), 빈삼각회(교수바둑회), 의료원바둑회 등 많은 단체에서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동문회 김성호(신방65, (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수석부회장, 정재규(치의68, 정재규치과의원 원장) 수석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과 심사위원장에 한철균 7단(전 기사회장), 심판위원에 심우섭 7단(서울시바둑협회 전 무이사), 모교출신의 김바로미(대학원) 명지대학교 비독학과 교수가 참석해 대회의 권위를 높였다.

◆5개조로 나뉘어 총4국 진행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정재규 수석부회장은 “중앙일보 전국대학 종합평가와 QS 세

계대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더욱 도약하는 모교에 많은 동문님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처음 열린 바둑축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바둑축제는 평화조(2급 이상), 문화조(3~6급), 세계조(7~9급), 창조조(10급 이하), 재학생부 등 5개조로 나뉘어 변형스위스리그 형식, 총호선, 덤6집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4시간에 걸쳐 총 4국이 진행됐으며 열띤 공방이 이어질 때마다 함성과 한숨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별리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철균 7단과 총동문회 김성호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5명 참가자의 다면기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최강조 우승에 재학생 황정찬 군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열린 평화조 최종국에서는 법학과에 재학중인 황정찬 군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해 기념메달, 금수저 4벌, 은수저 4벌과 총동문장학회 장

학금 200만원이 전달됐다. 황정찬 군은 “이번 바둑축제에서 많은 경희인과 대국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축하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바둑축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더 많은 경희인이 함께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학생부 우승자 황정찬 군과 준우승을 한 최준석 군에게는 각각 장학금 200만원이 전달됐다.

문화조에서는 선경호(화학85) 동문, 세계조에서는 정진봉(사학80) 동문, 창조조에서는 최재황(법학77) 동문이 우승을 차지해 기념메달과 금수저 4벌, 은수저 2벌이 수여됐다. 또한 각 조 준우승자에게는 금수저 2벌, 은수저 2벌이 전달됐고 평화조 3~5위에게는 금수저 2벌이 전달됐다.

총동문회에서는 2011년 3월 12일, 제2회 바둑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승패를 떠나 바둑으로 하나된 경희인들의 열정이 매년 꾸준히 이어지면서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자 명단

	수상내역	성명(학과, 입학년도)
평화조	우승	황정찬(법학2004)
	준우승	황원순(홍미미 동문 가족)
	3위	성백환(호텔관광대학 교수)
	4위	김우용(영문74)
	5위	최준석(호텔관광2006)
문화조	우승	선경호(화학85)
	준우승	김장원(법학76)
세계조	우승	정진봉(사학80)
	준우승	서상규(법학61)
창조조	우승	최재황(법학77)
	준우승	원영성(수학92)
학생부	우승	황정찬(법학2004)
	준우승	최준석(호텔관광2006)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는 5개조로 나뉘어 변형스위스리그 형식, 총호선, 덤6집반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동문회 2011년 신년교례회

모교는 최근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7위(종합대학 중 5위)를 달성하고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 사립대학 중 4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아 2011년 신년교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인 상, 공로상, 단체상, 경희가족상 시상 예정)

-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 참 가 비 : 3만원
- 문 의 : 총동문회 사무처(02-744-8854~6)



시, 소설 ... 대한민국 문학의 중심

고향산의 붉은 단풍이 한껏 뽀내기를 마치고 어느새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본관, 평화의 전당, 교시탑 등 모교 곳곳에는 400여명 경희문인의 학창시절 추억이 스며들어 지금도 훌륭한 작품의 원천이 되고 있다.

동문회보에서는 2회에 걸쳐 모교가 배출한 동문 문인들을 집중 조명하여 경희 문학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본다. 1회에서 소개한 황순원 교수, 전상국 동문, 정호승 동문에 이어 경희를 대표하는 동문들과 작품을 2회에서 만난다. 박이도, 신봉승, 이성부, 조해일, 조세희, 고원정, 하재봉, 류시화, 이문재, 서하진 등 대한민국의 감성을 책임지는 경희 대표 문인들이 있어 올 가을도 문학의 정취가 캠퍼스에 가득하다.

시집 '어느 인생' 출간



박이도(국문56)

박이도 문학전집(4권) 및 신간 시집 '어느 인생' 출판 기념회를 지난 10월 29일 개최했다.

'박이도 문학전집'은 인간생명존중의 정신과 따뜻한 인간애를 표현해 온 박 동문의 문학세계를 정리한 것으로 이번에 총 8권 중 1차분인 4권이 먼저 출간됐다. 또한 신간 시집 '어느 인생'은 50년 동안 시를 써온 시인의 인생과 종교에 대한 간결한 노래들을 담고 있다.

박 동문은 1959년 자유신문 신춘문예에 시 '음성',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황제'로 등단한 후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망과 숙명을 소재로 시를 써왔다. 또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기독교 신앙을 통해 얻은 체험을 구약적인 이미지로 노래했다. 때로는 성육신과 부활의 신약적 세계를 형상화하는 시세계를 구축해 왔다. 저서 '회상의 숲', '북향', '폭설', '바람의 손끝이 되어', '불꽃놀이', '빛의 형상' 등을 출간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해 왔다.

제4회 다산대상 수상



신봉승(국문57)

극작가로 유명한 신 동문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제4회 다산대상' 문화예술부분을 수상했다.

신 동문은 강릉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1960년 현대문학 시와 문학 평론에 추천 등단했다.

1962년 시나리오 '사랑은 주는 것'이 영화화된 것을 계기로 해마다 대 여섯편의 시나리오를 쓰는 한편, TV시대 개막과 함께 방송드라마에도 진출했다. 영화화된 시나리오 중에는 '맨발로 뛰어라', '저 하늘에도 슬픔이', '하숙생', '서울은 만원이다' 등이 있고, 역사드라마로는 '사모곡', '연화(蓮花)', '인목대비', '조선왕조 500년', '찬란한 여명' 등이 있다. 한국 방송드라마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대중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제11회 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분과 회장 등을 역임했고 아시아영화제 각본상, 한국백상예술대상 각본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이성부(국문60)



조해일(대학원)



조세희(국문63)



고원정(국문74)



하재봉(국문75)



류시화(국문78)



이문재(국문78)



서하진(국문79)

박이도, 신봉승 동문과 더불어 문단에는 60학번 동문들의 뛰어난 활약이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1959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바람'으로 데뷔한 이성부(국문60) 동문은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대신문학상, 제1회 가천환경문학상 시 부문 등 여러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들의 양식', '전야', '빈 산 뒤에 두고'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조해일(대학원) 동문은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매일 죽는 사람'이 당선돼 등단했다. 신문 연재소설로서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겨울 여자'와 '우요일(雨曜日)'에서는 인간 심리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를 구현하기도 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유명한 조세희(국문63) 동문은 197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1970년대 중반 '갈날', '뽕비우스의 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클라인씨의 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으로 이어지는 난장이 연작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각광을 받았다.

또한 70학번대로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희인으로는 고원정, 하재봉, 류시화, 이문재, 서하진 동문이 있다.

고원정(국문74) 동문은 주로 정치와 사회 및 역사를 소재로 하여 작품 활동을 해왔다. 한때 방송 진행자로 활약하고 정치·사회·스포츠

분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영화평론가로 잘 알려진 하재봉(국문75) 동문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총괄부, 월간 문학정신 편집장, 월간 문화예술 편집장, 영화잡지 로드쇼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아트탱고 대표, 동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80년 한국문학 신인상, 1991년 문예중앙 소설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많은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류시화(국문78) 동문은 대학 2학년 때 '아침'이라는 시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사랑하라는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등을 간행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Twitter)에 시를 연재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문재(국문78) 동문은 1982년 '시운동' 4집에 '우리 살던 옛집 지붕'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 동문은 문학동네 편집주간,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시사저널 취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서하진(국문79) 동문은 1994년 소설 '그림자 외출'로 데뷔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라벤더 향기', '비밀', '소설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 등을 출간하며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선희 학생기자



惟 信

권 순 재 (토목공학, 99卒) / 권 오 병 (토목공학, 93卒)
김 익 중 (토목공학, 78卒) / 남 궁 혁 (토목공학, 98卒)
박 기 정 (토목공학, 01卒) / 배 영 욱 (토목공학, 84卒)
윤 인 한 (토목공학, 78卒) / 이 경 철 (토목공학, 89卒)
이 동 식 (토목공학, 85卒) / 이 상 원 (토목공학, 09卒)
이 충 훈 (토목공학, 94卒) / 장 재 령 (토목공학, 92卒)
전 서 용 (토목공학, 84卒) / 정 기 동 (토목공학, 93卒)
정 윤 희 (토목공학, 97卒) / 한 주 현 (토목공학, 93卒)

경희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www.skyprogolf.com

4대째 이어가는 아이언헤드의 장인, 카프자 후지모토를 직수입했습니다. 스카이-프로는 최상의 재질과 고객만을 위한 세상에서 단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골프 클럽으로 일관성있는 골프 스윙을 만들어 드립니다.

고객을 보지않고는 클럽을 만들지 않습니다!
철저한 1:1 맞춤 서비스!



- 스카이프로는 클럽점검과 피팅 및 스윙분석레슨 등 골프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페셜 맞춤 골프클럽의 선두주자 입니다.
- 국내외 우수한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스카이프로 맞춤클럽을 선택 하셨습니다.
- 전화 및 방문하시는 동문님께서는 전문가 상담과 클럽점검 및 스윙분석레슨을 무로서비스하고 특별우대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이사 장 철 민 (경영대학원, 81入) 011-9956-1204



스카이프로 지점 ■463-8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63-3 1층 ■본사 문의전화: 031-719-6445 ■용인 신길점: 031-263-6443 ■부천 상동점: 032-329-4770

매그놀리아 스토리, 사랑의 잎을 달아주세요!

모금 캠페인 시작 3주만에 2억 7천여만원 모어

모교 대외협력처에서는 매그놀리아 스토리(목련 이야기) 모금 캠페인을 최근 시작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경희사랑의 마음을 엮어 서로 돕고 보살피는 '작은' 나눔의 이야기이다.

모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 19일, 모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돼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벌써 2억원 이상이 약정됐다.

기부를 하면 기부자의 이름으로 나뭇잎이 생성되고 잎이 모여 목련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된다. 기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목련나무가 늘어나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읽기'를 통해 기부자가 전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다. 향후에는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의 사연도 소개되어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학기금은 단과대학별

전공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선택하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장학기금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모든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 난민 등 모교의 지구적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각종 해외봉사활동,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희 지구사회 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결과 무의촌 의료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에 사용된다.

최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모교에서 더 많은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고 국가와 인류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선배의 사랑을 후배에게 되돌려주는 경희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모교 대외협력처(전화: 02-961-0932~3)

동문님의 경희사랑을 기대합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목련 이야기)는 경희를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모아 재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우리 동문 한 분 한 분이 작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모교가 진정한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목련 이야기'는 학교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원하는 학과나 봉사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득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꼭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해주셔서 경희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외협력처
김운호 처장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그놀리아 스토리



①성유리 동문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름다운 기부사연을 소개한 홍보영상이 나옵니다. ② '매그놀리아스토리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발전기금 기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③장학기금(단과대학 및 학과, 학부, 전공) 및 사회봉사기금을 선택합니다. ④한 그루 나뭇잎이 다 채워지면 작은 나무로 변경되고 새로운 나무가 생성됩니다.



⑤학과, 전공별 모금금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기부약정 메뉴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⑦학과 및 전공을 선택합니다. ⑧격려 메시지를 적으면 마음읽기 메뉴에 게시됩니다.



⑨기부약정 페이지에서 작성한 격려 메시지가 마음읽기 메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⑩모든 사이트 페이지에서 '이름으로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나뭇잎에 기부자 이름이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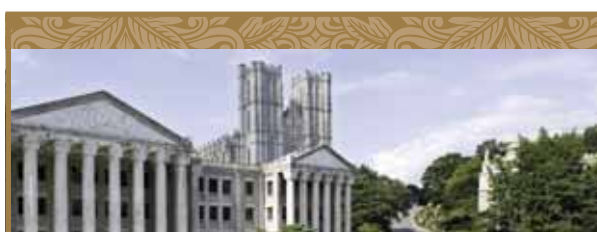
동계 백두산 천지횡단 및 동계 백두산 해돋이 일출트레킹

기간	2010년 12월 31일(금)~2011년 1월 3일(월) 예약기간 마감 : 11월 20일(토)
회비	1,250,000원 (※팁 40\$)
입금은행	우리은행 1002-543-014483 농협 302-0227-7323-11

※전 트레킹 상품 경희대학교 동문은 7% 할인됩니다.



백두산 산악인회 총대장 고영철
Tel: 02-752-3711 Fax: 02-2263-3720
Mobile: 010-5846-2750
E-mail: beadu2750@hanmail.net
(고영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백두산 고영철'을 검색해 보세요)



www.joart.co.kr

조 아트

홈페이지 제작 / 웹호스팅
쇼핑몰 전문 제작 / 카달로그, 인쇄물 제작

실장 조영진 (경영대학원.01入)

인천시 부평구 탄곡동 370-71
Tel : [032]561-9371
Fax : [032]565-5311
E-mail : info@joart.co.kr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청양산업

대표 유재수 (성악과·64入)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8 리젠트오피스텔 705호
TEL : 02)447-6679/453-4116
FAX : 02)453-4112
E-mail : cy4114@dempal.com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ROTC동문회 경무제 · 홈커밍데이

ROTC동문회(회장 송권영)는 지난 11월 6일, 모교 평화의 전당에서 경무제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약 400여명의 동문들과 후보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ROTC동문회 송권영(신방69, 신일산업(주) 대표이사,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은 “창의와 질서를 존중하는 ROTC의 강령처럼 진실, 정의, 공평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며 “올해 조성된 장학금이 머지않아 후보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경희ROTCian으로서의 자긍심과 책무감을 느끼고 모교에 도움이

되도록 동문 간에 화합하자”고 말했다.

모교 조인원 총장은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08학군단, 경희대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고창석 서울캠퍼스 학군단장은 “자랑스러운 학군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의 위상에 맞는 명실상부한 명문이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선후배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제캠퍼스 후보생들

의 절도 있는 예도단 공연이 펼쳐져 동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후보생들이 파트너들과 함께 입장하는 식전행사에서는 커플들이 서로의 애정을 과시하는 등 젊음의 패기가 느껴졌다.

1부 식전행사가 끝나고 평화의전당 로비에서 열린 오찬행사에서는 선배동문들과 후배들이 함께 어울려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3부에서는 초청공연 및 후보생 공연이 이어지면서 ROTC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동은 학생기자



동대문구동문회 창립준비모임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일,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동문을 주축으로 동대문구동문회 창립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동문회 최동량(법학66) 조직분과위원장, 최동원(법학71) 사무처장, 김영환(행정대학원, 충청경제사회연구회장) 동문, 이한규(행정73, 동서신의학병원 운영지원본부장) 동문, 류상근(경영대학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 간사장) 동문, 지용호(법학84, 민주당 청년위원장) 동문을 비롯해

20여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윤경섭(토목공학79, GM대우 석계영업소 부장) 동문, 오미원(교육대학원, 아인스학원 원장) 동문이 총무로 활동하기로 했으며 김광훈(회계87, 동대문구청) 동문과 최정목(체육91, 원혜영 국회의원 비서관) 동문, 총동문회 신묘균(국제관계학98) 계장이 부총무로 선출됐다.

동대문구동문회는 향후 2~3차례 모임을 열고 창립대회를 개최해 5천여 동대문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정학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9일, 모교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기념식에서는 오세덕 명예교수, 정경대학 한군태 학장, 신동면 행정학과장, 행정학과동문회 한정수(행정65, 한택산업(주)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세덕 명예교수는 “행정학과 창립 50주년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정경대학에서 법과대학 소속으로 이동하고 다시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소속으로 바뀌는 등 많은 성장통이 있었지만 행정학과 동문들의 결속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대학 한군태 학장은 “50년 역사의 자부심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과 철학으로 부단히 정진해야 한다”며 “동문, 재학생, 교수가 합심하여 무궁한 힘을 발휘하자”고 전했다. 한정수 동문회장은 “경희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행정학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어 50주년 기념집 소개와 경희행정 비전 선포가 진행됐고 특히 이날 자리에서 행정학과를 빛낸 동문들에게 공로상과 경희행정인상이 전달됐다. 공로상은 오세덕 명예교수와 이계탁 명예교수에게 전달됐으며 자랑스러운 경희행정인상에는 김석원(행정66), 신익현(행정67), 박

영식(행정71), 공민배(행정74), 전종렬(행정75), 박종구(행정76), 이계순(행정77), 김태년(행정84) 동문이 선정됐다.

2부에서는 재학생들의 활기찬 축하공연이 젊음의 열기를 더했고, 역사적인 50주년을 맞아 모든 동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은 학생기자



생명과학대학 제2회 동문체육대회

생명과학대학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9일, 모교 국제캠퍼스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체육대회는 생명과학대학동문회 김문기(식품공학76, 한국바이오협회 정책사업본부장,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올랐다.

이날 최근원 생명과학대학장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가 전국 7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생명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과학대학동문회는 김용식(농학66, 김용식방송아카데미 원장, 총동문회 이사) 전 동문회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동문회 임원과 학생회 소개를 진행했다. 체육대회에서는 물풍선 던지기, 발야구, 축구, 이어달리기 경기가 열려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돼 선후배의 돈독한 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편은혜 학생기자

제20회 사회인의 밤 11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더 리버사이드호텔
법과대학동문회 한미음 등산대회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청계산
여성동문회 와인열차여행 11월 27일(토) 오전 9시, 서울역
법과대학동문회 고향기우회 11월 27일(토) 낮 12시, 한일바둑
분당수지동문회 송년회 12월 2일(목) 오후 7시, beautiful beer
미국 워싱턴동문회 총회 12월 4일(토) 오후 6시, 이가
경희체육인의 밤 12월 6일(월), 리베라호텔
회계인의 밤 12월 9일(목) 오후 7시, 포에버리더스 역삼점

언론정보학부 생타제 12월 10일(금) 오후 7시, L타워 그랜드볼룸
체육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의 밤 12월 10일(금) 오후 6시, 프리마호텔
대전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월 17일(금) 오후 7시, 오페라웨딩
미국 남가주동문회 송년의 밤 12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가든 스위트 호텔
송년음악회 12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모교 평화의 전당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1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산하 동문회 모임 소식을 총동문회 사무처(전화 02-744-8854~6 이메일 khua2001@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무역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가 지난 10월 30일, 크라운관에서 동문, 교수, 재학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조인원 총장의 축하 영상메세지에 이어 한군태 정경대학장, 김학민 무역학과장, 이창민 동문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학과발전 및 후학양성에 힘쓴 3명의 원로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경희무역 30년사 책자 발간을 소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무역학과동문

회는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무역학과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한 1억원 약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축하공연 중심으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연예인 공연(배다해, 바닐라루시, 박혜경)과 사내 동아리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이 열렸다.

무역학과동문회 이창민(무역83, (주)카멜리스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회장은 “30년의 짧은 역사지만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무역학과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졸업동문과 재학생, 교수 등 경희 무역 구성원 모두가 미래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취업설명회, 멘토 활성화 등에 더 많이 노력하면서 전국 무역학과 1위라는 평가에 걸맞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원(무역86) 총무

응용수학과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응용수학과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와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9일, 모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하성남 응용수학과장, 박성일 교수, 응용수학과동문회 최진혁(응용수학86, 총동문회 이사) 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동문 체육대회에서는 배구, 족구, 피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통해 동문과 재학생들 간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어 홈커밍데이를 통해 응용수학과와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1980년 국제캠퍼스 이공대학 수학과로 창립된 응용수학과는 수학적 사고가 요청되는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선진 금융 산업을 선도할 수학적 능력을 갖춘 인재, 정보/통신/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 통계/전산/등 응용수학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최근에는 국내 수학과 top 7을 목표로 학과 연구 경쟁력 강화 및 학과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하성남 학과장은 “수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신입 교수를 2명을 새로 충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응용수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유용호 학생기자

응용화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응용화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16일, 중앙도서관 르네상스홀에서 개최됐다. 1980년 이공대학 화학과로 출발한 응용화학과가 30주년을 맞아 교수진과 졸업생,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응용화학과 이영식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내빈인사에 이어 학과 연혁, 현황이 소개됐다. 모교 국제캠퍼스 오택열 부총장은 “응용화학과 모든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학과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과 교수 소개,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저녁식사와 피아노 4중주 연주와 무

지컬 공연, 동문 대표 공연 등이 펼쳐졌다.

-편은혜 학생기자

북미주동문회 2011년 총회·골프대회

제15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오는 201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2011년 총회 및 골프대회 일정에는 토키타운틴 밴프-재스퍼 관광이 포함되어 있고 다채로운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으로

미국방문과 더불어 동문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완(체육70, Lyle Pacific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북미주총회 준비위원장은 “내년에 열리는 총회에 많은 동문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www.crossarc.co.kr

(주)크로스구조연구소

건축구조설계 및 특허
공법 전문회사

대표이사/구조기술사
김 점 한 (건축공학과, 80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3 동신 B/D 5F
Tel : (02)529-2835 / Fax : (02)2057-2834
E-mail : cross21c@chol.com

www.dgi-net.com

DGI (주)디지아이

회장 최 관 수 (경영원 90卒)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271-6
Tel : (031)820-8900
Fax : (031)820-8990
E-mail : kschoi@dgi-net.com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Sn (주)성훈테크

회장 이 한 기 (상학과 66卒)
(前 서울특별시 제 6,7대 의원 역임)

Tel : (031)319-8184
Fax : (031)319-8189
Mobile : 010-5251-2416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법과대학동문회, 후배 위한 장학금 전달

법과대학동문회(회장 김주형)는 지난 10월 7일, 모교 서울 캠퍼스 법학관 301호 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법과대학동문회 김주형(법학68,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총동문회 부회장) 회장, 양진후원회 유철균(법학71,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변호사, 총동문회 이사) 회장, 박덕영(법학73, (주)한맥휴먼테크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 재무국장, 모교 정완용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교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문회는 이 자리에서 법과대학 고시부 8명에게 1학기 장

학금 1,500만원을 지급했고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에게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지난 8월 열린 '제1차 법대/법전문기금운용위원회'에서 법과대학 고시부에게 연간 3천만원, 법학전문대학원에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법고시 합격에 도움을 주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동문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급할 예정이다.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강필정 행정실장



중국동문회, 한-중 함께 하는 첫 모임



중국동문회(회장 주요철)는 지난 10월 16일, 중국 북경에서 북경, 천진, 하북지역 동문모임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모임은 모교를 졸업한 한국인 동문과 중국인 동문이 함께 한 첫 자리로 40여명의 동문이 참여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동문회 주요철(영교75, 화자대학교 실용문화예술대학 학장) 회장은 "모교가 최근 발표한 대학평가에서 종합대학 중 5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이는 모든 동문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동문과 중국인 동문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동문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북경지

역 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한국인 동문과 중국인 동문이 함께 하는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금재(중문94)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국인 동문회 임원으로 박범길(대학원) 회장, 대필뢰(대학원) 부회장과 채웨이(대학원) 부회장이 선출됐다. 박범길 회장은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동문회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경희인의 단합을 보여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동문회 경약장학금 전달



사진제공: 약업신문

약학대학동문회(회장 김행권)는 지난 10월 1일, 모교 교수회의실에서 4명의 재학생에게 '경약장학금'을 전달했다.

경약장학금은 매년 약학대학발전기금(장학기금) 수익금으로 약학대학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행권(약학67, 세종메디칼(주) 대표이사, 총동문회

부회장) 동문회장을 비롯해 정서영 약학대학장과 장학금 수혜 재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약학대학동문회 김행권 회장은 "앞으로 발전 기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약장학금에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과대학동문회 고향기우회

법과대학동문회 고향기우회(바둑동호회)는 오는 11월 27일 낮 12시에 서울 서초동 소재 한일 바둑에서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기우회 모임은 매 홀수월(1, 3, 5, 7, 9,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열리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생활의 지혜

효율적인 전기매트 사용법

추운 겨울철에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기매트 아래에 까는 이불이 두꺼울수록 보온력이 좋아져 전기료 절감에 효과적이다.

반면, 전기매트 위에 까는 이불이 두꺼울수록 전달되는 열이 낮아 전기료는 증가한다.

소프라노 김윤신 동문 LA에서 독창회

남가주동문회(회장 이상명)는 지난 10월 3일, 소프라노 김윤신(음악74) 동문의 '제3회 슈베르트 가곡의 밤 독창회'를 LA 그렌데일에 위치한 브랜드 라이브러리&아트센터 리사이트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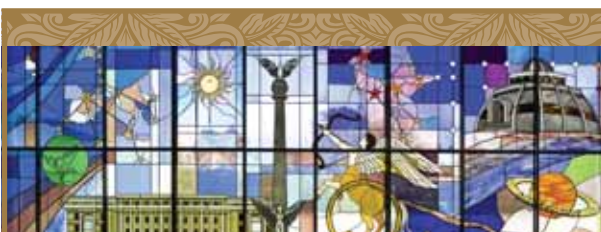
LA에서 활동 중인 김 동문은 성가를 비롯해 많은 행사에서 축가를 부르고 있으며 현재 동문회 부회장으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동문,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

한 이날 공연에서 김 동문은 슈베르트 가곡 마왕, 우편마차, 얼어붙은 눈물, 고독, 용기 등 총 17곡을 불러 관중으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음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이날 독창회를 관람한 앤디 호프만 씨는 "독창회를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며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엄익청(상학60) 동문



인제당한의원

전문상담분야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갱년기,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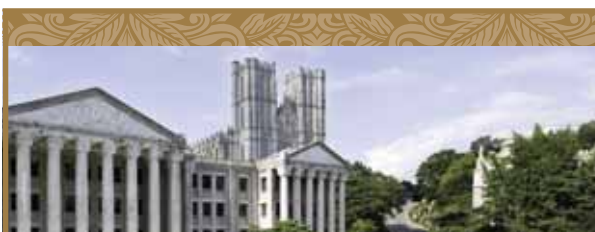
원장·한의학박사 은 중 원 (한의학. 83入)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47-23(농협시지부맞은편)
진료문의 : (031)633-2344
전화예약 : (031)633-7176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www.aragroup.co.kr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건축기획,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CM), 감리전문〉

대표이사 왕 정 한 (건축공학과.82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19 백영빌딩 2층
Tel : (02)549-6693
Fax : (02)549-6697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법무사 조숙연 사무소

法務士(韋堂) 趙 璫 衍

[事務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53-69
電話 : 041-356-9700
Fax : 041-356-9702
Mobile : 010-5470-0779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체육대학 동문골프회 첫번째 대회 열어

체육대학 동문골프회(회장 김해곤)는 지난 10월 15일, 포천 가산노블리제 CC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모교 최영렬 체육대학장이 골프대회에 함께 참여한 가운데 13개조를 이뤄 첫 라운딩을 진행했으며 체육대학동문회 하일성(체육67, 스카이엔터테인먼트 회장, 충동문회 부회장) 회장이 골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열린 대회 결과 모교 스포츠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노호성(체육84) 동문이 69타 최저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라운딩이 끝난 이후에는 만찬을 겸한 시상식이 이어져 체육대학 동문들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하일성 동문회장이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후원했으며 김해곤(체육74) 골프회장이 100만원을 후원했다. 또한 모교

최영렬 체육대학장이 고급우산 70여개를 협찬했으며 유승희 전 체육대학장과 이종남(체육61) 전 동문회장이 각종 물품을 후원했다.

경제학과동문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경제학과동문회(회장 이학봉)는 지난 9월 28일, 충무로에 위치한 대림정에서 하반기 이사회와 장학금 수여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2011년 총회의 준비사항을 토의하고 2008년 제작한 동문록을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동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동문선배들의 엄격한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신원호(경제학과2) 학생과 유은혜(경제학과3)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경제학과동문회는 지금까지 2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150여명의 재학생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경제학과동문회
김천수(경제88) 총무

체육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의 밤

체육대학원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의 밤을 프리마호텔 신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장명재 체육대학원장과 재학생,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학원의 10년간 발자취를 되새기고 경희인의 결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대학원동문회 성기석(태권도 84, (사)한국과학마사지협회 회장, 충동문회 부회장) 회장은 “체육대학원의 10주년 행사에 많은 동문님께서 참석하셔서 뜻 깊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대전동문회 3분기 정기모임



대전동문회(회장 기태석)는 지난 9월 28일, 42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선된 염홍철(정의64, 충동문회 자문위원) 동문이 참석해 동문들의 사기를 북

돋워 주었다.

동문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연말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17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2년 임기의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전동문회 이철형(경영85) 총무

체육대학 동문등산모임 첫 등반 진행



체육대학 동문등산모임(회장 나봉순)은 지난 11월 6일, 광교산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산행을 진행했다.

이날 모교 최영렬 체육대학장이 모임에 함께 참여했으며 체육대학동문회 하일성(체육67, 스카이엔터테

인먼트 회장) 회장이 직접 방문했다.

오전 10시 반에 모여 사진촬영을 한 후 시작된 산행은 오후 1시쯤 끝났다. 이후에는 푸짐한 만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하일성 체육대학동문회장이 150만원 상당의 만찬을 후원했다.





치과대학 동문장학회 1호 장학생 탄생

(사)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문장학회(이사장 김세영, 치과대학동문회장)는 지난 11월 1일, 이사회를 겸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4명의 치전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로써 장학재단은 지난 7월 12일 정식 발족된 후 4개월 만에 1호 장학생들을 배출하게 됐다. 이날 김태정(4학년), 허석(3학년), 고은진(3

학년), 심현진(2학년) 등 총 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장학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장학금 지급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부보험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진이 지부를 순회 방문해 동문들의 기부보험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이 어려운 동문의 경

우에는 법인에 바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세영(치의76, 김세영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부회장) 이사장은 “1백억 기금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가운데 1호 장학생이 탄생했다”며 “후배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ROTC동문회 바둑모임 창립



ROTC동문회 산하 바둑모임인 경무기우회가 지난 10월 1일 창립대초대 경무기우회장에 한경강(약학66) 동문이 선출됐다. 더불어 오세창(법학61) 동문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신동식(기계공학69) 동문이 총무로 임명됐다.

이날 ROTC동문회 송권영(신방69) 회장은 “금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우회가 창립되면서 산악회, 골프회와 함께 동문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됐다”고 격려했다.

한경강 기우회장은 “기우회의 조직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모임에는 ROTC동문회 6대 지회장(경제64) 회장, 7대 김성호(신방65) 회장, 8대 최동량(법학66) 회장, 김용겸(섬유공학67) 경무산악회장 등 여러 동문이 참여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10월 1일 창립 모임 이후 경무기우회 회원들은 11월 6일 모교 네오르네상스관에서 열린 제1회 경희가족바둑축제에 많은 동문이 참가해 바둑 실력을 겨루었다.

경무기우회는 지속적인 바둑모임을 개최하면서 ROTC동문회 화합에 더욱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밝은사회SNM클럽 예담원 봉사활동



밝은사회SNM클럽(회장 이광균)은 지난 9월 20일, 강동구 둔촌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예담원을 찾아 60여명의 원생들에게 봉사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생필품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1일 봉사를 진행했다.

밝은사회SNM클럽은 해마다 추석, 설날, 연말에 예담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총동문회 구현서(사학55) 자문위원, 박기서(사학58) 자문위원, 박용수(수학60) 자문위원, 박창규(정의68) 부회장, 이규섭(수학82) 부회장, 성기석(태권도84) 부회장, 박영길(법학60) 이사, 서의석(행정대학원) 이사, 정운숙(행정대학원) 이사, 김기록(행정74) 이사, 황옥심(식영75) 이사, 한기광(법학77) 이사가 함께 참여했다.

동문님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23만 동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총동문회보에 실릴 산하동문화 행사 일정, 동문 동정, 자유주제의 칼럼 등을 총동문회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도 사무처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동문회 사무처〉

전화: 02-744-8854~6

팩스: 02-744-0067

이메일: khua2001@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hua.or.kr>

평택동문회에서 온 편지

모교 국제캠퍼스를 다녀와서



To. 경희동문님들께

평택동문회 동문들은 모교 서울캠퍼스를 4월에 방문한 이후 지난 10월, 국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의 탁 트인 교정, 특히 중앙광장은 정말 멋졌으며 마치 외국 유명관광지에서 본 듯한 교시탑과 조각상, 만남의 장소 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동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잘 다듬어진 대학이 또 하나의 모교라고 생각하니 정말 소리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고지도를 전시하고 있는 혜정박물관을 둘러보며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니 자료 하나 하나가 모

두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후배 재학생들이 많이 등교해 교정에서 발랄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선배로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동문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국제캠퍼스 오택열 부총장님, 김운호 대외협력처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교를 찾는 기쁨이 두 배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모교! 경희대학교, 경희인 만세입니다!

From. 최송빈(체육교육64)
평택동문회장

경희사이버대, 뉴질랜드 한글교사 세미나



제4회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회장 고정미,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 졸업) 주관 교사연수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이버 강의를 통한 실제 한국어 교육’이란 제목으로 지난 10월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주 오를랜드 분관, 재외동포재단 등이 후원한 연수로 세계 한글학교 역사상 최초로 경희사이버대와 뉴질랜드 한인학교 교사연수간 실시간 세미나로 화제가 되었다.

뉴질랜드 한글학교 전체 교사연수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올해는 역사 강의에 재외동포신문 대표 이형모 이사장이, 문화 강의에 중대국악교육대학원 전송배 교수가, 한국어 강의에 경희사이버대학 김지

형 학과장이 함께 했다.

김지형 교수는 한글날을 맞이해 ‘훈민정음과 한국어 발음지도’ 교수법으로 한주간 실시간 세미나에 성공해 NZ한인학교 협의회와 함께 경희사이버대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온라인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 전망했다.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는 한인 차세대들이 현지 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에 발족한 단체다. 특히 한인학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인학교 교사들의 친목과 교육정보 공유를 위해 매년 한글날을 기해 ‘뉴질랜드 한인학교 교사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년기념 회고록 발행



박 명 광(경제65)
국가비전연구소 대표, 충동문회 자문위원

경제학 교수로 3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박 동문이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후 회고록

‘박명광 이야기’를 최근 발행했다. 박 동문은 모교에 재직하며 2회에 걸쳐 미국에 교환교수를 다녀오고 모교 학생처장, 정경대학장, NGO대학원장, 부총장을 지내며 열정적인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박 동문은 ‘경제와 달리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제17대 국회의원이 되고 정책연구원장과 최고위원을 지내며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보다는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운동권 대학생부터 보수 정권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은 교류와 화합의 중심에 서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 동문은 경실련 국제연대 운영위원장, 개혁신당연대추진회의 상임대표, 국회 제정경제 위원, 열린정책연구원장,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 국가비전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박 동문은 이번 회고록에서 “정년을 맞이한 지금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전환점을 도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어떤 시기가 오면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회고록을 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한상대회 공동대회장

조 병 태(체력관리65)
SONETTE, INC. 대표, 충동문회 부회장



‘한민족 경제의 중심, 한상 네트워크!’란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개막한 세계한상대회의 공동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인들이 상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경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행사이다. 조 동문은 세계 해외한인무역협회와 세계한상대회 출범의 산파역으로 1998년에 직접 전 세계를 발로 뛰며 한상들을 조직해 한인무역인 총회 개최를 성사시킨 바 있다.

조 동문이 운영하는 모자업체 플렉스 핏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이저리그(MLB) 야구 모자와 인기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이 뛰던 시카고 불스의 모자를 만들었다. 유연한 스판덱스 소재를 이용한 플렉스 핏의 모자는 연간 3,000만개를 판매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자를 팔고 있는 업체로 올라섰다.

더불어 조 동문은 대구시 해외경제자문관으로 위촉됐다. 해외 시장정보 및 국제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9천억원 가스플랜트 계약 체결



박 기 석(화학공학73)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충동문회 이사

삼성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계열의 PCSB사가 발

주한 7억7000만 달러(약 9100억원) 규모의 가스 오일 분리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체결했다.

이번 공사는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 지역에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와 12억5000만 입방피트의 가스 분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대형 공사로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업주와 함께 통합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해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의 전 과정을 수행하며 2013년 12월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화공 업스트림(Upstream) 분야인 GOSP(Gas & Oil Separate Plant) 시장에 첫 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고부가가치 GOSP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간다는 전략이다.

박 동문은 “이번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플랜트가 건설되는 사바 지역의 고용촉진, 석유사업 활성화 등 경제부흥을 이끌겠다”면서 “페트로나스와 구축해온 동맹 파트너십도 향후 사업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5년만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 복귀

최 일 구(국문79)
MBC 기자, 충동문회 이사



MBC가 가을개편을 맞아 처음으로 선보인 주말 8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했다. 지난 2005년 ‘뉴스데스크’ 앵커 석을 떠난 이후 5년만이다.

최 동문은 1985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장, 뉴미디어에디터, 스포츠취재팀장, 보도제작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방송되는 본격 인터뷰 프로그램 ‘뉴스와 인터뷰’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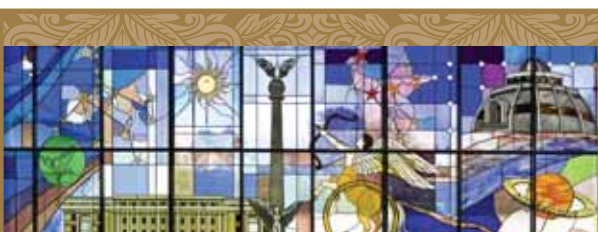
특히 지난 2003~2005년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서민들에게 친근한 앵커로 꼽힌다. 당시 파격적이고 친근한 클로징 멘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때 영세한 만두 가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자 “저희도 만두 시켜먹었습니다”라는 말로 만두에 대한

거부감을 환기시켰다. 또 경제 위기로 인한 맨홀 뚜껑이 사라지자 “맨홀 뚜껑 가져간 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라며 소위 ‘최일구 어록’이 화제를 모았다.

최 동문은 “뉴스 팩트를 충실히 전달하되 기존 방식과 다르게 편하고 즐겁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11월 6일 저녁 8시 첫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시청률이 8.1%, 7일은 9.2%를 기록했다. 9시대에 기록했던 6~7%에 비하면 소폭이지만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최 동문은 ‘낙지 파동’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민을 직접 찾아가 직접 낙지를 잡고 시식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신촌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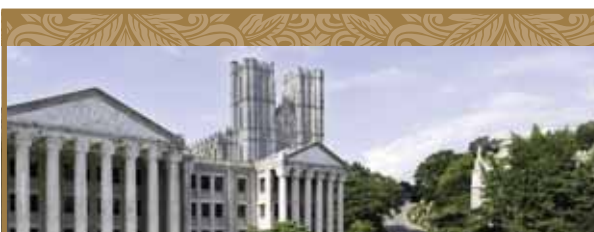
원장 **한 요 욱** (한의학과 5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1
Tel : (02)334-0111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회



www.young-seo.co.kr



(주)영서물산

대표이사 **이 용 철** (신방과 69학번)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24-18
Tel : (02)323-0204~6
Fax : (02)323-0121
Email : ysck89@young-seo.co.kr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회



JOY Knit Planning

조이 어패럴

대표 **유 재 근** (최고경. 09인)

(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8-42 2층
(공 장)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85-2
Tel : (사무실) (02)854-4856 / (공장) (02)854-4850
Fax : (02)854-4859
Mobile : 011-9870-2979
E-mail : Joy4850@naver.com

www.khua.or.kr



경희대학교충동문회

KBS K1 기업열전 방영



김 동 극(정외66)
(주)극동보석 회장, 총동문회 자문위 부위원장

지난 10월 21일 방영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K1 기업열전'에 출연

했다.

(주)극동보석은 원석생산에서 디자인 및 제품까지 소비자에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판매하겠다는 신념으로 30년 동안 인조다이아몬드인 큐빅 지르코니아 주얼리사업에 매진하면서 세계 1위 업체로 올라섰다.

극동GNS 대표이자 한국보석협회 회장으로서 30년간 보석제조, 연마, 가공을 근간으로 사업을 확장한 김 동문은 현재 보석감정교육기관 GIA KOREA, 부동산 극동I&D, 펄택 원석공장, 청다오극

동보석유한공사로 영역을 넓혔으며 국내에서는 스포츠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압구정과 안산에 극동멤버십 스포츠클럽을 경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월에는 중국 산둥성 청다오 한국인회 회장으로 당선돼 1월부터 2년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청다오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기업의 위상을 높인 김 동문은 한인회장 입후보에 단일후보로 등록하여 제2차 이사회에서 투표 참여자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김 동문은 "청다오에 거주하는 10만여 교민의 안녕과 더불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성동문회 부회장 이윤희 교수 시인으로 등단

이 윤희(사학69)

서일대학 민족문화과 교수, 총동문회 이사



지난 10월 《문학마을》 신인 문학상 시 부문에서 서사시 <송의전崇義殿에서> 등으로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미 유럽문화기행 《호주머니에 담은 유럽》이 베스트셀러가 된 바 있고 이 책에 담겨진 한 편 <베를린 장벽>전문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독서》에 실린바 있다. 작가의 타이틀을 얻고 다시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 동문은 "문학은 최면처럼 다가와 우리를 유인한다. 소설 책 한권이, 시 한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 나는 문학의 그 불멸의 힘을 믿기에 나름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등단작 <송의전崇義殿에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조난한 역사의 굴곡을 헤쳐 온 우리인 만큼 서사시는 새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 동문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교수, 한국관광공사 이사, 국가보훈처 현충심의위원, 재경매산 총동문회장을 거쳐 문화관광부 정책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 경희대학교 여성동문회부회장, 서일대학 교수평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국장병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



홍 석 보(경영79)
학교법인 일지학원 이사장, 총동문회 부회장

지난 10월 7일, 비봉고에서 열린 개교50주년 기념식에서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

사자 유가족 13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일지학원 정재장학회는 천안함 전사자 이창기 준위의 아들 이산군 등 10명에게 충효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천안함 실종자 구조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딸 한슬기 씨, 제2연평해전 전사자 조전형 중사의 딸 조시은 양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홍 동문은 "고교 졸업까지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줄 예정이며 이후 뉴질랜드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지학원은 뉴질랜드 정부

인가를 받은 스포츠 전문 단과대학 CSM 대학(Canterbury sports management college)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 중이다.

홍 동문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고 1993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 홍성무 전 이사를 장을 떠돌리며 이런 사업을 기획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때 다리를 다쳐 귀국하시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김포공항에서 아버지를 향해 손 흔들고 애대개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아버지가 숨진 아이들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일지학원은 이날 '대한민국 수호천사(순국장병) 유가족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뜻의 천사모 발족식도 가졌다.

체육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송년의 밤 개최

성 기 석(태권도84)

(사)한국과학마사지협회 회장, 체육대학원동문회장



체육대학원동문회장으로 활동 중인 성 동문이 체육대학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프리마호텔 신관 그랜드볼룸에서 기념행사와 송년의 밤을 연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대학원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경희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에 앞서 성 동문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대한건기연맹이 지난 10월 30일~31일 이틀간 원주에서 제16회 원주국제건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미국, 스위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20여개국 500여명을 비롯해 4만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젊음의 공장을 출발해 치악산 기슭과 원주 외곽을 도는 5개 코스를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성 동문은 지난 해 인터넷 종합미디어사인 뉴스웨이신문사가 주최하고 (사)대한무궁화중앙회가 특별 후원하는 '제8회 장한 한국인상'에서 장한 교육인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Glenford University 체육교육학박사. (사)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사무총장, 국제통합대체의학회 부회장, 한국운동지도학회 기획이사, 한국대학에어로빅스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모교 체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사)한국과학마사지협회 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대산경영(주)

대표 최 영 옥 (경영대학원.02卒)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7-33 옥산빌딩 지하1층
Tel : (02)528-1151
Fax : (02)528-3021

경희대학교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DKSH코리아(주)

1. 태양광 및 풍력 제조 설비 수입 판매
2. 고압 주조기 수입 판매
3. 공작기계류, 진공 열처리로 수입 판매
4. 고전압 시험기 수입 판매
5. 전선 제조 설비 수입 판매
6. 치즈 생산 설비 수입 판매
7. 계측기류 수입 판매
8. 섬유기기 수입 판매

부사장/기계사업부 허 태 석 (기계 85)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6-11 대선빌딩 4-6층
Tel : (02)2192-9701
Fax : (02)2192-9595/6
Mobile : 010-6360-3693
E-mail : Tae-Seok.huh@dksh.com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경희대학교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명상사

대표이사 정 명 선 (행정학.75入)

www.khua.or.kr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중국 조선족 소학교 후원회장



▲이경표(정외64, (사)백야 김좌진 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충동문화 부회장)

지난 6월 열린 중국 조선족 소학교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후원회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인 백야 김좌진 장군이 마지막으로 세운 신창학교의 후신이다. 이 동문은 “순수한 우리글과 우리말로 교육을 하는 흑룡강성 해립시 조선족 실험 소학교를 기점으로 중국 조선족 소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얼마 전 해립시 소학교에 피아노 1대와 축구복 40벌, 축구공 40개 등을 전달했으며 임기 3년 내에 수세식 화장실과 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몽골국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 회상록 출판 기념회



▲김혜정(테크노경영대학원, 혜정박물관장, 충동문화 부회장)

‘한몽 수교20주년 기념-몽골국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 회상록 출판 기념회’를 지난 10월 28일 개최했다.

몽골국 초대 대통령 오치르바트 회상록은 1996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 제작·출판된 이래 2001년 일본어판이 출판되고 이어 김 동문의 작업으로 한국어판이 제작·출판됐다.

이 책은 김 동문이 오랫동안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나누어 왔던 몽골의 오치르바트 대통령의 회상록을 번역한 것이다. 회상록에는 과거 세계에서 2번째로 공산국가가 됐던 몽골이 민주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각종 역사적 사실을 비롯해 몽골의 역사, 전통, 문화, 관습 등 몽골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 지식경영 관한 공동연구 진행

▲박홍열(경제58, 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교수, 충동문화 자문위원)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모교를 방문해 경영대학에서 경영전략과 지식경영을 가르쳤다. 더불어 모교 교수들과 연구팀을 만들어 지식경영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모교 방문과 관련해 박 동문은 “발전된 모교의 교정에서 사랑스러운 후배들과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지낸 것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교와 동문회가 지향하는 세계적 명문사학의 성취가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경인신보 평화대상 수상

▲윤윤섭(경영61, 성진시 명예시장, 충동문화 자문위원)

지난 9월 17일, 경인신보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윤 동문은 함경북도 성진시 명예시장, 바르게살기중앙회 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경기지역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일 역사왜곡·은폐·조작 제문제 연구

▲박영길(법학60, 위례지역발전연구소 대표, 충동문화 이사)

위례지역발전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인 박 동문이 한일 역사왜곡·은폐·조작 제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있다.

박 동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험 문제, 일본군 위안부 역사 제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진실을 밝히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학회 평생공로상

▲유명철(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석좌교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태평양 국제인공관절학회’에서 평생업적공로상을 받았다.

국내 의료진이 국제학회에서 업적상을 받은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 국제인공관절학회’는 한국과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40여 개국이 참석하는 인공관절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학술기구이다.

■ 홀인원에서 이어진 모교 사랑

▲김중은(지리61, 모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1회 총장배 교수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교수는 현재 관광대학원 CEO 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며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생물공학회 담연학술상 수상

▲이은열(모교 화학공학과 교수)

최근 열린 ‘한국생물공학회 설립 25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신포지엄’에서 ‘2010 한국생물공학회 담연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 교수는 국토해양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의 지원을 받은 ‘광학활성 에폭사이드 가수분해 효소 개발 연구’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담연학술상은 최근 5년간 단일 주제에 대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장래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45세 이하의 젊은 생물공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양동자(체육61, 전 하위드대학교 교수)

2010년도 유공 재외동포 포상 대상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1960년대 초 도미한 양 동문은 미 태권도연맹 2대 회장, 팬암 태권도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태권도의 미 올림픽위원회 정식종목 채택에 큰 역할을 했다.

또 하위드대 교수, 미 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세계 체육학 교수들의 국제조직인 세계체육학회 회장에 재선돼 한국의 스포츠의 교에 공헌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2차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도 활동했다.

■ 세계우수교육자 100인에 선정

▲안규석(한의69, 모교 한의과대학 교수, 충동문화 부회장)

세계 3대 인명사전인 IBC의 2010년 세계우수교육자 100인에 선정됐다.

안 동문은 모교 한의과대학장, 한의학연구소장, 국제한의학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 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SCI 논문이 20여편 이상이다.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문 선 희
(간호73, 소설가)



(사)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현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 펴냄
160쪽

항일 독립운동가 고현 박상진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로 출생부터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청년 시절, 광복회 결성 및 활동, 일경에 체포되어 순국하기까지 37년간의 짧은 생을 담고 있다. 박상진은 사형 집행 전날에도 흐트러짐 없는 단아한 자세로 유서를 써 내려갔고, 그 모습은 구국의 열정에 사로잡혀 무력 투쟁도 불사한 독립 투사라기보다는 학처럼 고아한 선비였다.

문 동문은 신춘문예에 동화 ‘소나무와 민들레’가 당선된 뒤로 동화집 ‘말하는 거북이’, 청소년 장편소설 ‘장다리꽃’, 장편소설 ‘사랑이 깨우기 전에 흔들지 마라’ 등 13권의 창작집과 ‘취업 성공을 위한 가이드북 글쓰기와 말하기’를 펴냈다.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김 중 회
(국문75, 모교 문화홍보처장, 충동문화 이사)



도서출판 문학수첩 펴냄
260쪽 / 12,000원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인물 7명과의 대화를 묶었다. 문화의 이어령, 만화의 이현세, 가요의 조용필, 영화의 임권택, 연극의 이윤택, 소설의 이문열, 시의 류시화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무엇이 이들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현세 씨는 만화를 내며 겪은 우여곡절과 한국 만화의 시스템에 대해, 이윤택 씨는 문학으로 입문해 기자를 거쳐 연극계로 들어오기까지의 뒷이야기를, 류시화 씨는 시와 출판, 번역을 아우르는 노하우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2010 품앗이안 세계대회 참여



▲장문섭(신방67, 사단법인 H2O 사무총장, 총동문회 부회장)

▲김정희(간호73, 실버갤러리 은성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지구촌품앗이한마당 기념식 '2010 품앗이안 세계대회'에 참여했다.

사단법인 H2O 지구촌품앗이한마당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고유전통의 정신인 품앗이를 실천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필리핀 대사 및 주재원, 해외동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품앗이 운동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아니스트의 혼은 가슴 속 압도 어찌지 못했다



▲서혜경(모교 음악대학 교수)

2007년 4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재기한 서 교수가 최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전곡에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까지 수록한 음반(CD 3장)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냈다. 지휘자 알렉산더 드리트리예프가 이끄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했다.

2008년 1월 암 수술 후 가진 첫 복귀 무대에서 서 교수가 택한 곡도 라흐마니노프 2번과 3번이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그는 라흐마니노프 2·3번을 한 무대에서 연주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한국문협 이사장 선거 출마

▲이철호(한외67, 이철호한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2011년 1월에 진행되는 제25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 선거 일정이 공고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 그는 "앞으로 문인들의 권익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문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문단에 비해 취약한 지방문단의 균형적 발전에 힘을 모으고, 등단 30년 이상된 고령 문인들에 대한 질병치료, 독거문인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그간 수차례 창작집을 출간하여 동료문인들에게 보내는 등 문학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꾀하였고, 최근에는 장편소설 '바람의 도시'를 출간했다.

■ 한국국제협력단 감사패 수상

▲김중섭(국문77, 모교 국제교육원장, 총동문회 이사)

지난 10월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로부터 KOICA 지구촌체험관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 봉사 파견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모교 국제교육원은 199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개발도상국의 한국어 연수생에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료생이 340여명에 이른다.

■ 하버드 의과대학 Post-Doctoral fellow 참여

▲이선민(대학원)

모교 의과대학 기초의과학과 김성수 교수의 지도를 받은 이 동문이 내년 3월부터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Augustine M.K. Choi 교수 연구실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하게 됐다.

호흡기 내과 의사인 Augustine M.K. Choi 교수는 호흡기 질병에 관한 연구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동문은 모교 재학 중 Cell Research(IF 8.1), Journal of Hepatology(IF 7.8),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IF 6.1) 등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이뤘다.

■ 마라톤天馬會 사무실 이전

▲김대성(체육68, 천마회장, 시인)

천마회는 달리기수련의 유토피아 금정체육공원 마라톤 코스(부산 금정구 두구동 전원마을)로 되돌아왔다.

지난 1970년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육상경기 5천미터 트랙경주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김 동문은 국가공인 마라톤지도자로서 36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105명의 문하생을 이끌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지리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에서 '天王峰에 핀 마라톤 푸른장미'라는 축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희의 위상을 드높였다.

사무실주소: 부산 금정구 두구동 779번지 마라톤天馬會 / 전화: 011-391-7310

■ 제16회 치아모 이웃돕기 정기행사

▲박금출(치의76,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오는 11월 19일 오후 5시 30분, 종로 파노라마 뷔페에서 제16회 치아모 이웃돕기 정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모에 대한 효와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낭송, 성악, 시 특강, 엔돌핀 2차 시연대회 건강특강 등이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내 가족과 내 직업 그리고 이웃과 치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인 '치아모'는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을 돕는 일이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인 동방예의지국을 이어가게 만들고자 하는 모임이다.

■ 콜로라도 대학 Post-Doctoral fellow 참여

▲탁은영(대학원)

모교 의과대학 기초의과학과 김성수 교수의 지도를 받은 탁 동문이 지난 9월부터 콜로라도 대학교에 있는 Holger K. Eltzschig 교수 연구실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하게 됐음을 통보받았다.

Holger K. Eltzschig 교수는 마취과 의사로서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에 관한 연구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탁 동문은 모교 재학 중 Journal of Hepatology(IF 7.8), Cell Research (IF 8.1) 등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한국 프리라디칼 학회 성료

▲김성수(의학76, 모교 의과대학 교수, 총동문회 이사)

한국 프리라디칼 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동문이 지난 9월 10일, 2010년도 한국 프리라디칼 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프리라디칼학회 회장인 Victor Darley-Usmar와 프리라디칼 분야에 저명한 국내외 학자가 다수 참여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프리라디칼에 관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앨라배마대학교 Victor Darley-Usmar 교수의 연구실에 김 동문의 지도 학생인 이지선 박사와 최태규 학생이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하기로 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제27차 일본장애인치과학회 참관

▲이성복(치의78, 치의학전문대학원 학과장, 총동문회 이사)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27차 일본장애인치과학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했다.

이번 학회에서 이 동문은 '고령사회에서 치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의뢰받아 국제 세션의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 대한약학회장 취임

▲정세영(모교 약학대학 교수)

최근 실시된 제47대 대한약학회장 선거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대한약학회장에 취임했다.



경쟁법연구

▲정 완

(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부회장)



도서출판 법원사 펴냄
508쪽 / 30,000원

경쟁법의 핵심내용인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해석 및 주요각국의 경쟁법 동향에 관하여 저술한 책이다.

정 동문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의 이론과 내용을 축조해설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하였고, 책의 후반부에는 유럽, 미국 등 주요 각국의 경쟁법 동향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정 동문은 2009년 사이버치안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에 등재됐다. 이어 IBC 21세기 세계 지식인 2,000 및 세계 100대 교육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고깃배 그윽히 밀어내는 아침

▲안 호 원

(언론정보대학원, 시인, 수필가, 총동문회 이사)



도서출판 논형 펴냄
241쪽 / 10,000원

전직 의학전문대 기자 출신이자 대학에서 윤리학을 강의하는 안 동문이 9번째 시집을 펴냈다. 기쁨 속에서 고통을 관조하고 불행 속에서 희망을 끝내 놓지 않는 한 시인의 관조된 인생 스펙트럼을 한 사업가의 눈으로 절절히 투영한 '시-시평집'을 출간했다.

60대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인인 안 동문과 40대의 사업가 민경두씨(데일리팝 대표이사)의 시평이 만나 '시가 나를 바라본다'는 부제처럼 시와 시평이 영적 교감을 해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책이 쓰여졌다.

우리네 아버지들의 숨김없는 소사와 대사들이 살아 숨 쉬는 시각의 대화로 생생하게 드러난다.

■ 사이버범죄 특강실시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부회장)

(사)21세기 여성정치연합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여 개최된 201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포럼에서 사이버범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들의 인터넷상 권리를 향상시키고, 피해를 방지해 인터넷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정 동문은 지난 10월 24일에 방영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 송파문화원장

▲이봉암(대학원,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지난 9월 6일 송파문화원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6대 송파문화원장에 선출됐다.

이 동문은 “구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관내 기업에 사회적 참여를 촉구해 문화원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다문화시대에 맞는 강좌 등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동문은 안면경련 수술분야의 권위자로 모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한소아신경외과 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축하합니다

▲김영채(임학66, 모교 생체시스템공학과 교수, 총동문회 이사)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자녀 기원씨 혼인

▲김봉구(경제67, 금호리조트(주) 고문, 총동문회 부회장)

11월 19일 오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자녀 치현씨 혼인

▲윤태원(법학67, (주)길림양행 대표이사, 총동문회 부회장)

10월 30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베일리 9층 세인트체펠에서 자녀 문현씨 혼인

▲강태범(화학공학69, 상명대학교 교수, 총동문회 부회장) 10월 8일 오후 7시 노블레스웨딩 컨벤션 18층 노블레스홀에서 자녀 민석씨 혼인

▲김대웅(언론정보대학원, 브리안산업(주) 대표이사, 언론정보대학원동문회장)

11월 20일 오후 5시 월드글로리아 6층에서 자녀 상훈씨 혼인

▲최춘기(의학73, 최춘기이비인후과의원 원장)

11월 15일 오후 7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 볼룸에서 자녀 지영씨 혼인

▲손영기(의학77, 제일의원 원장)

10월 24일 오후 2시 30분 건설화관웨딩홀 2층에서 자녀 정하씨 혼인

▲조출현(의학90, 더와이즈병원원 산부인과)

10월 24일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에서 혼인

▲조인석(무역91, 세무법인 정&하 세무사)

12월 12일 오전 11시 부산 노블리아웨딩홀 2층에서 혼인

▲양희영(의학9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에서 혼인

▲이경찬(의학97, 해군 해양의료원)

10월 24일 오후 2시 30분 남산자유헤럴드웨딩홀에서 혼인

▲김갑성(모교 응용과학대학 교수)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 SC컨벤션강남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녀 혼인

■ 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연임

▲박방주(전자공학79, 중앙일보 기자)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박 동문은 중앙일보에서 20여 년간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유명 학술지 PNAS 논문 게재

▲Augustine Choi(모교 의과대학 교수)

지난 2월 모교에 Eminent Scholar로 부임한 최 교수가 최근 유명 학술지 PNAS에 논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과장이며 2011년 1월까지 모교 Eminent Scholar로 활동 중이다.

■ 유럽소학기학회 트래블 그랜트 수상

▲차재명(의학90,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최근 전 세계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차재명 교수는 최근 열린 제18회 유럽소학기학회(UEGE)에서 ‘증식성폴립으로 오인할 수 있는 편평거치상생종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특성’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 학회로부터 트래블 그랜트(Travel Grant)를 수상했다.

트래블 그랜트는 유럽소학기학회가 우수한 연구를 선정해 학회에 참석하는 여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상이다.

한국기독교계 찬양과 율동을 조화시킨 선구자, 이애라 동문



▲이애라(법학66,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 학장, 총동문회 부회장)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의 학장이자 글로벌선교교회 담임인 이 동문은 한국기독교계에서 찬양과 율동을 조화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감리교 5대째 신앙으로 22년 전 ‘찬양을 동적으로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율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찬양율동을 방송, 문서, 인터넷, TV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1989년 이애라찬양율동선교회 설립

1989년 처음 이애라찬양율동선교회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2천여회의 집회, 국내외 선교활동으로 찬양율동공연을 해왔고 직접 창작하여 안무한 찬양율동곡이 300여 곡을 넘어 이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비디오도 30여 편에 달한다. 지난 해에는 20주년을 기념해 총 8개 부문으로 작품 모음집 ‘하늘의 춤’ DVD도 제작했다.

특히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은 서울 본교 뿐 아니라 전국에 총 16개의 지방본교, 10개의 미국 본교, 100여개의 선교단, 졸업자들이 세운 16개의 신학원 등 총 40여개의 교육기관을 통해 1년에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도구로 평가받아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월드기독교예술제’를 개최하며 찬양율동을 통한 해외선교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매년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교예술제와 송년의 밤 개최

지난 5월 22일에는 KBS공개홀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교예술제’가 펼쳐져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남북한이 믿음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날 이 동문은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어언 120년의 세월이 흘렀고 1,200만 크리스찬을 아우르는 종교로 급성장했지만, 보고 느낄 만한 기독교문화 이벤트가 없어 늘 아쉽게 생각했는데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찬양율동기독교예술제와 송년의 밤(10회 개최) 등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크리스찬연합신문 이사장, 글로벌 선교교회 담임목사, 예장합동찬양총회 총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이 동문은 지난 해 ‘2009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로 선정되어 한국일보를 통해 대한민국 목회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의를 표합니다

▲서창석(경제64, 모교 무역학부 교수, 총동문회 자원위원)

10월 31일 빙모상

▲김성연(의학67, 김성연산부인과의원 원장)

10월 11일 모친상

▲윤광희(행정71, peoplebiz.net 컨설팅 대표, 총동문회 이사)

11월 1일 모친상

▲현의일(법학71, KB신용정보(주) 영업2부 영업이사, 총동문회 이사)

10월 29일 부친상

▲최천식(의학72,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과장, 총동문회 이사)

10월 31일 빙모상

▲박명진(의학73, 세란병원 산부인과)

10월 22일 별세

▲김근식(원예생명공학75, 동방침구제작소 대표, 총동문회 부회장)

9월 30일 모친상

▲김중현(건축공학77, 모교 건축학과 교수)

10월 13일 장인상

▲심양희(모교 교양학부 교수)

10월 3일 시모상

▲박상모(의학83, 구광내과의원 원장)

10월 10일 빙부상

▲나학렬(의학87, 나학렬내과의원 원장)

10월 25일 빙모상

▲최경식(관광통역82, 대호컨설팅 대표, 총동문회 이사)

11월 1일 부친상



BOOK NOTICE

안중근을 보다

▲황 병 훈

(경제91, 춘천MBC 프로듀서)



도서출판 해피스토리 펴냄
219쪽 / 13,800원

안중근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복위38도’와 ‘안중근, 분단을 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전국에 방송했던 황 동문이 최근 ‘안중근을 보다’를 펴냈다.

안중근 다큐멘터리의 연출을 맡았던 황 동문은 지난 2년 동안 안중근의사취재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을 방문했으며 안 의사의 고향인 북한을 방송 사상 최초로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100년만에 다시 드러난 새얼굴, ‘안중근을 보다’를 출간했다.

안중근 의사를 생생한 사진과 자료를 바탕으로 표현했다. 하나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안 의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문화 및 역사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를 재조명한다.

돈,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법

▲권 도 형

(정의98, 에이플러스에셋 지점장)



도서출판 한스컨텐츠 펴냄
208쪽 / 12,000원

몸에 좋은 약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아무리 좋은 재테크 방법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보다 효과적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전문회사 에이플러스에셋의 지점장으로 있는 권 동문은 이 책에서 사람의 성향에 따른 맞춤 재무설계를 제안한다. 돈과 관련한 사람의 성향을 지출형, 저축형, 투자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향에 따른 맞춤 ‘스타일 재무설계’를 통해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법을 제시한다. 또한 자산불리기를 넘어 자신의 업과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윤덕보(정외65, 경희의료원/동서신의학병원 장례문화원 운영본부장, 총동문회 자문위원) ‘2010년 평화의 날 기념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지난 10월 30일, 남양주시 호평동 체육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밝은사회 한국 본부 동부클럽 회장 맡아 이번 음악회를 주최한 윤 동문은 “아름다운 음악과 선율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 마음속에도 평화와 사랑의 나눔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동문은 지난 11월 5일, 2010 밝은사회 한국본부 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고 동부클럽이 우수클럽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윤 동문은 오는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으로 위촉된다.

■ 아름다운 도전, 새 삶의 변화

▲정균화(신방67, 신구대 경영학과 교수) 오는 12월 16일 오후 8시,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아름다운 도전, 새 삶의 변화’를 주제로 제2회 독창회를 연다.

정 동문은 “대학 재학 중 독창회를 가진 후 40년만에 두 번째 독창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음악회에서 평소 부르던 가곡, 아리아, 팝송 등 여러 음악의 장르를 함께 부르려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음악가상 수상

▲홍윤식(작곡69, 양주시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음악대학 동문회장)

6인비평가그룹이 선정한 제30회 오늘의 음악가상을 오는 12월 16일 수상한다. 홍 동문은 양주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 수도권 북부의 음악발전사에 중대한 전기를 제공한 공을 인정받았다.

■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

▲이종욱(기악74, 모교 음대 겸임교수, 총동문회 부회장)

지난 10월 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에 참여했다. 1993년 창단된 앙상블 프리즈마는 국내 대표적인 목관 앙상블팀이며 창단 17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매년 정기연주회, 지방 순회공연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최현석(작곡83)

지난 10월 22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예술법인 서울신포니에타의 139회 정기연주회에서 최 동문의 ‘정읍사’와 ‘Impression-Fantasy for String orchestra’ 2곡이 초연됐다.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합주를 위한 ‘정읍사’는 바이올린 협주곡 양식의 3악장으로 되어 있으며 ‘Impression-Fantasy for String orchestra’는 폭풍 속 달빛을 비쳐가는 구름 때 같은 모습을 환타지 형식에 담은 곡이다.

■ 브라운갤러리 초대전

▲정창균(미교90)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브라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정 동문은 모교 강사,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협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1998, 2001, 2003), 경기미술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제24호 동인지 출판기념회

▲김희선(국문65, 한국수필작가회 회장, 총동문회 이사)

한국수필작가회 제24호 동인지 출판기념회가 오는 11월 13일 오후 4시, 호텔프린스에서 열린다. 김 동문은 “회원님들의 주옥과 같은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국수필작가회의 발전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현대음악 작곡발표회

▲김영식(작곡68,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 총동문회 이사)

10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제13회 한국 현대음악 작곡연구회 작곡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내악, 신국악, 성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이 발표됐으며 김 동문은 ‘플룻, 피아노, 타악기, 인성(테너)을 위한 기도’를 발표했다.

김 동문은 작곡가이며 음악평론가로 현재 한국현대음악작곡연구회 이사장과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분당아버지합창단 10회 정기연주회

▲김신일(성악74, 분당아버지합창단 지휘자, 총동문회 이사)

지난 10월, 대한민국 남성합창 페스티벌과 제33회 한국합창제에 참여했다. 이어 11월 5일에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분당아버지합창단 10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했다. 김 동문은 현재 아름다운 음악가들 음악감독, 한국 일반합창연합회 회장, 벨칸토 성악전문음악원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 창작춤공연 ‘처용’

▲정은혜(무용76,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사)정은혜민족무용단이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 14일 오후 4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한국춤의 정체성을 밝히는 창작작품 ‘처용’을 선보인다.

‘처용’은 지난 15년간 매년 꾸준히 새로운 창작 작품을 내놓고 있는 정은혜무용단의 아심작으로 처용무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철학을 창작무용화했다.

정 동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PAF 올해의 안무가상, 스프링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한국춤비평가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로맨틱 콘서트 ‘LOWISH’

▲정경(성악2001, 성악가)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Alan Smith와 로맨틱 콘서트 ‘LOWISH’를 지난 10월 30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었다.

차세대 성악가로 활동 중인 정 동문은 이탈리아 아베르바니아 국제 콩쿨 1위, 아시아 국제 음악 콩쿨 1위, 오사카 국제 콩쿨 2위 등 국내외 다수의 음악 콩쿨에서 우승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솔리스트로 연 50회 이상의 콘서트에 출연하는 전문 연주자 중 한 명이다. 이어 정 동문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8시, 인촌 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초청으로 제6회 바리톤 정경 독창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희문단

이성부(국문60, 시인, 총동문회 이사)

흰 돌기둥의 시간이 나를 여물게 하였다 -경희대 60년에 부쳐

소년에서 청년으로 발을 옮기던 어리송한 열여덟 살
곤색 교복보다는 검정 물들인 군용 작업복 차림으로
날마다 등용문을 드나들었다
체육대를 지나 교시 탑 오른쪽 언덕을 오르면 야외 음악당과 문리대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흰 돌기둥의 본관 석조전이
장엄하게 빛나며 버티고 있었다
아직 날개가 돌아나지 않은 몸통뿐이었으나
그 집은 마치 그리스 신전의 신화처럼 나를 흔들었다
1960년 경희대 캠퍼스의 모습인데
나는 이곳에서 나의 소년이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보았다
틈만 나면 임간교실로 들어가 혼자 머무르거나
벤치에 앉아 고향산 너머로 사라지는 흰 구름 바라보거나
담배를 피우며 심각한 척 서성이기도 하였다
자취방이 있었던 이문동에서 회기동 청량리 홍릉을 걸어 다니면서
내 어린 심성은 점차 키가 크고 단단해져서
여리고 어수룩하고 물러 세상 물정 모르던 속매이
치기 발랄하여 방황을 일삼던 소년이 어느덧 여물어져서
청년으로 꽃피던 그 언저리에
흰 돌기둥이 깊게 뿌리박은 것처럼 서서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만에 다시 와서 보니
흰 돌기둥은 그새 날개가 돌아 세계를 퍼덕이는구나
온통 눈부심뿐이로구나!

작가소개 1942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모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2년 『현대문학』에 시 「백주」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고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대산문학상 등을 받았다. 시집인 『빈 산 뒤에 두고』, 『지리산』, 『우리들의 양식』 등이 있다.

※개교 60주년 경희 문인 글모음 '내 사랑 목련화'에서 발췌했습니다.

■ 흠어진 사람들-신영성展

▲신영성(미교77)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통의동 보안여관에서 전시를 연다. 통의동 2-1번지 ‘보안여관’은 80여년의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정처없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 50점과 조성된 기금은 (사)한국다문화연대 의료, 문화, 교육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한국다문화연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신 동문은 개인전 11회와 150여회의 기획·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 서울패션위크 참가

▲정두영(섬유92, 신원 지이크파렌하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2011 S/S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해 지난 10월 23일, 패션쇼를 진행했다. 서울패션위크는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및 브랜드 60여개가 참여했다.

정 동문의 이번 테마는 ‘파렌하이트 야팅-FAHRENHEIT YACHTING’으로, 지난 2010 F/W 컬렉션에서 비행을 컨셉으로 했던 ‘파렌하이트 플라이트(FAHRENHEIT FLIGHT)’에 이어 귀족 해양 스포츠인 야팅 YACHTING(요트 경기)으로 새로운 테마를 제시했다.

■ UN본부 콘서트 참여

▲이도용(기악80, KBS 교향악단 단원)

KBS 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이 동문이 지난 10월 22일, 세계 평화의 상징인 UN 총회장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KBS 교향악단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의 협연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선율을 선사했다. KBS 교향악단의 UN 연주회는 지난 1995년 ‘UN의 날콘서트’ 이후 15년만에 이뤄졌다.

더불어 이 동문은 뉴욕 카네기홀 연주와 워싱턴 D.C.연주에도 성공적으로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 영화 김종욱찾기 쇼케이스

▲공유(연극영화99)

지난 11월 11일, 영화 김종욱찾기 의 쇼케이스에 참석했다. 공 동문은 극중 ‘첫사랑 찾기 사무소’ 소장 한기준 역을 맡았다.

동명 창작 뮤지컬을 영화로 재탄생 시킨 ‘김종욱 찾기’는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첫사랑 찾기 사무소’를 오픈한 한기준(공유)이 고객 서지우(임수정)의 첫사랑 김종욱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이며 오는 12월 9일 개봉한다.

경희가족 즐거운 가을밤의 멜로디

학부모 초청 경희사랑 가을콘서트가 지난 11월 5일, 모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교직원, 동문, 학부모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가수(박세환, 김태우, LPG, 레인보우, 박현빈 등)와 재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충동문회를 대표해 참석한 한명남(정의63, 모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자문위원장은 “모교는 이제 한국의 일류를 넘어 세계의 명문으로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며 “세계적인 학문의 전당, 지구적인 평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경희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소나기에 젖은 황순원 문학의 향연

올해로 일곱 해를 맞는 '황순원문학제'가 지난 10월 1일부터 3일 까지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소나기마을 개장 전부터 다섯 해에 걸쳐 초종교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오던 문학제는 개장 후 두 해째를 맞아 황순원문학세미나, 문학강연, 문화공연, 그림그리기대회 역대 입상작 전시회, 황순원 원작 영화 다시 보기 등의 행사가 더해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높은 수준을 자랑했다.

◆세미나,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 연이어

문학제 첫날, 황순원문학관 수숫단강당에서는 '황순원 문학세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황순원 문학연구 심화 및 대중화'와 '소나기 마을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학제 둘째 날인 10월 2일에는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백일장 시제는 황순원 단편 <별>을 일부 고친, 다음의 장면이 들어간 산문을 쓰는 것이었다.

-하늘에 별이 별나게 많은 첫 가을밤이었다. ○○(은) 전에 땅 위의 이슬 같이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 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많은 별들을 뒤지고 있다-

그림그리기 대회 화제는 황순원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돌맹이·소나기·소·수숫단·대추·호두알·조개·시냇물 등 자연물이 하나 이상 들어간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었다.

심사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인 백일장 대상은 박재희(안양예고 2년), 그림그리기대회 대상은 김혜윤(설악고 2년)이 각각 수상했다. 백일장 최우수상은 하주현(마석초 5년)의 3명, 우수상은 유혜민(강하초 6년)의 3명이 받았으며, 그림그리기 최우수상은 우다연(서중중 3년)의 3명, 우수상은 신혜지(서중초 5년)의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가와 함께하는 황순원문학촌 기행

문학제 마지막 날 열린 '작가와 함께하는 황순원문학촌 기행'에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약 60명이 참가하였다.

김종희 교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황순원 문학영상 다큐멘터리 관람, 작가와 황순원문학관·소나기테마공원을 돌며 황순원의 문학과 삶과 소나기마을에 대한 설명 듣기, 점심을 같이 하며 작가와 대화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행에는 문학평론가 김종희(경희대) 교수,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박덕규(단국대) 교수, 소나기마을 사무국장인 김기택 시인 등이 참여해 세 팀으로 나뉜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0월 한 달간 황순원문학관 중앙홀에서 열린 '황순원문학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전시회'는 학생들의 꾸밈없고 발랄한 상상력과 황순원 문학의 순수성의 결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도시의
꿈을 만듭니다.”

인간 존중의 공간환경을 만드는, 대양산업개발



경희, 그리고 화합



▲진지한 분위기속에 대국을 펼치고 있는 100여명의 참가자



▲한철균 7단과 다면기를 하고 있는 5명의 참가자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에서 수상한 자랑스러운 경희인



▲많은 동문들이 함께해 더욱 즐거운 법과대학동문회



▲ROTC의 기상이 느껴지는 경무회 동문들의 단체사진



▲멀리 고양시에서 많은 동문이 함께 참여해 큰 박수를 받은 동문들



▲후배들에 못지 않은 산행실력을 보여준 원로동문들



▲등산대회 내내 호응을 아끼지 않았던 언론정보학부 동문들



▲경희의료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에 참여한 동문들



▲멋진 개회식을 진행한 하일성 체육대학동문회장

고향산의 단풍이 어느 때보다 붉게 물든 10월과 11월은 경희인의 기량을 맘껏 뽐낸 즐거운 시간이였다.

지난 9월, 모교가 2010 중앙일보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전국 7위(종합대학 5위)를 기록하고 QS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국내종합대학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축제의 장이었다면 10~11월은 제6회 총동문등산대회와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로 23만 동문들이 행복한 날이었다.

1,200명의 동문이 참여한 총동문등산대회(10월 23일)는 파란 가을하늘과 도봉산의 아름다운 낙엽 속에서 경희인의 열정을 불태웠다. 이어 첫 발을 댄 경희가족 바둑축제(11월 6일)는 바둑과 모교를 사랑하는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경희의 도약을 응원했다.

모교 개교 61주년을 맞은 2010년, 올 한해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린 만큼 다가오는 2011년에도 다양한 행사로 23만 경희인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교수칼럼

문화세계 창조리더십



이 기 종(정외71)
모교 사회교육원장
충동문회 부회장

최근 유엔 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0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69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HDI는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평가한 지수인데, 통상 ‘삶의 질 지수’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4년 연속 HDI 순위에서 제자리(26위)였으나 올해는 14단계 상승하여 스위스(13위)를 앞질렀다. 지난달 뉴스위크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15위에 올랐다.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에서 우리는 BRICs 국가들에 밀려 15위권으로 떨어졌으나 내년에는 세계 10위권으로의 재진입이 예상된다. 아직 세계 금융위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적 역동성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두뇌와 높은 지식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정보화시대에는 대응력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앞섰다. 이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서 상징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성공이 사회 문화적 부문에도 그 효과를 확산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선진 문화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국의 선진일류국가건설은 문화적 성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교시는 ‘문화세계의 창조’다. 조영식 학원장님이 모교 설립 시에 내거신, 시대를 뛰어넘는 꿈이고 목표였다. 이 구상과 설계가 바로 21세기의 인류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모교는 말 그대로 ‘선구자’의 혜안과 사명감으로 문화사, 교육사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 자부심으로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문화갈등을 치유하고 네오 르네상스 시대, 21세기 종합문명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를 너머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는 것, 이것이 곧 ‘지도자적 면모’다. 모교는 이미 국내일류대학의 반열에 확고히 올라 있다. 이제 세계의 명문대학을 향해 비상하고 있는 즈음이다. 개교 61년 만에 전국 최고수준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탁월한 리더십’이다. 우리를 가르친 리더십, 우리가 배워 익혀 사회에 끼친 리더십이 바로 경희인의 모습이다.

“지도자 중 지도자 되라.” 학원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하시던 말씀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배려와 존중의 기반위에 도덕성과 전문가적 식견 및 역량을 갖춘 리더십,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가 조화된 리더십, 시대정신을 읽는 통찰력과 비전이 결합된 리더십이다. 이는 곧 스마트 파워를 갖춘 스마트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희인 모두가 스마트리더십을 갖추고 세계 곳곳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해 가기를 기대한다.

문화칼럼

세계 속의 신라음식으로 더욱 가까워진 경주



차 은 정(식영85)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교장
충동문회 이사

한식을 세계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은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우리음식을 해외로 알리는 노력은 한국음식의 우수성과 색, 향, 미에 녹아 있는 우리의 혼까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15년간 이 분야에 몸담아 온 필자는 자랑스롭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께서 한국음식세계화 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 정말 한국음식이 ‘때’를 만난 것 같아 행복하다. 최근에는 신라 이사금밥상이나 총무 이순신밥상, 영양음식다미방과 같이 스토리를 위주로 상차림을 개발하고 있어 점점 먹거리가 문화관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라 하겠다.

지난 10월 30일~3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경주관광르네상스’ 행사를 열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관광도시로 성장해온 경주는 최근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등재와 KTX 신경주 개통으로 새로운 변신을 맞이하며 이 시대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몇 년 전부터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라전통음식과 관광산업의 연계이다. 행사 첫 날에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공원식 정부부지사, 경주시 이태현 부시

장과 40개국의 주한 외국대사 등 경주관광서포터즈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전통음식체험관 라선재’에서 공식환영 오찬을 가지면서 경주관광 활성화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이번 오찬에는 경주를 상징하는 연(蓮)을 주제로 한 연자죽, 황태와 소고기를 이용한 어육구이, 인삼·대추·호박의 3색 튀김, 연잎밥과 황태국, 연근김치, 오색나물, 연근초, 돌배기 회무침, 금은화두부선 등의 음식과 유밀과와 정과, 오디를 이용한 전통후식을 신라유기와 고려청자, 토기에 담아 제공했는데 이는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부활시킨 한식세계화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는 이미 국제도시로서 식재료의 다양함을 갖추고 있었다”며 “한국음식의 다양함과 약식동원사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로 발전하는 우리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어 교육은 필수일 것이다. 더불어 유년시절부터 가정에서 전통음식을 자주 접하고 체험학습이나 공교육을 통해 이를 계승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 남지 않은 G20 정상회의에서 제공될 한식에 온 국민의 단합된 기를 모아 이번 행사가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동문칼럼

문학의 바다에서 조우한 모교

졸업한 지 어언 33년이 되니 대학시절의 여러 추억이 떠오른다. 재학 당시에 서술 퍼린 정권으로 총학생회가 학도호국단이 되었고, 수업이 끝나 교문으로 가기도 전에 최루탄 가스로 불가항력적인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다.

1976년 5월에는 재능이 많은 학우들과 함께 ‘제1회 간호학과의 밤’을 기획해 크라운관에서 막을 올렸다. 현악 4중주, 피아노 독주, 고전무용, 시 낭송, 의학과에 재학 중이던 배중우 학우는 찬조 시를 낭송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생은 방송드라마 ‘별’의 연출을 맡았고, 현대무용가 김화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현대무용도 선보였다. 그 당시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 온 관객들로 자리가 가득 찼고, 기획단은 안치열 의과대학 학장님과 김광주 학과장님의 칭찬으로 들떴다.

1986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내 동화 ‘소나무와 민들레’를 당선시켜주신 심사위원 이재철 선생님께서 올봄에 모

교 중앙도서관에 ‘사계 아동문학관’을 열어 개소식에 참석했다. 시험 때마다 자리쟁탈전을 했던 중앙도서관을 다시 찾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단생활을 해보니 모교 국어국문학과는 한국문학 대가들의 산실임을 알게 됐다. 재학 당시에는 오직 간호학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이제는 문학의 바다에서 모교와 조우하며 많은 경회인이 떠오른다. 교양국어 가르치셨던 김우종 교수님, 교양역사시간에 만났던 김성식 교수님, 파이프를 물고 아침 교정을 산책하셨던 조병화 교수님, 목련화를 열창하시던 엄정행 교수님,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모습은 내 아름다운 추억창고에 고이 저장되어 있다.



문 선 혜(간호73)
소설가·동화작가

진료비 할인혜택을 누리세요!

동문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 동문ID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해서 **선택진료비 20%, 종합검진비 20%, 장례식장 20~50% 할인**해 드립니다.

할인혜택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강남경희한방병원
선택진료비	20%	20%	10%
종합검진비	20%	20%	20%
장례식장	본인 50% 직계 40%	본인 30% 직계 20%	장례식장 없음

※ 질병의 종류와 처방 및 치료방법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D카드 발급문의: 경희대학교충동문회 사무처 (02-744-8855)

여성동문칼럼

내 고향 청도(淸道)의 가을(1)

가을이 되면, 특히 낙엽지고 서리 내리는 깊은 가을이 되면 나는 어린시절 내가 살았던 고향, 청도(淸道)를 자주 떠올리곤 한다.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매전면(梅田面). 내가 4살 때부터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 그 후에도 쪽 친할머니가 사셨고 지금도 선산이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향해 가다보면 대구를 지나서 있는 곳, 목탄열차가 다니던 일제시대에는 기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서 다시 물을 채우고 갔다고 한다.

내 기억속의 청도는 산이 깊어 나무가 울창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다. 청도읍에서도 30리가 떨어진 우리 마을은 양지바른 산기슭에 16~17 가구가 들어서 있는 크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그런대로 모두들 살만해서 정취가 있는 곳이었다.

마을이름이 매화밭이듯 그 곳에는 사랑방 앞에 한 두 그루씩 매화나무가 있었고 남색 난초꽃이 자라고 있었다. 뒤곁에는 의례이 모과나무가 있었다. 가을걷이를 끝내고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면 잎이 다 떨어진 모과나무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큰 모과들이 달려있던 것이 당시에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대나무도 우리 동네에선 흔한 나무였는데 늦은 밤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스스스스스스, 때로는 으악새 우는 소리처럼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쳐 내는 소리가 어린 내

마음에 와 닿곤 했다. 바람이 심한 밤에는 툭툭하고 모과가 뒷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우리 고향집을 가자면 청도읍까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음에는 하루에 2번 있는 버스를 타야 했다. 그차를 놓치면 한겨울에도 30여리를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다. 운이 좋은 날에는 우리 마을보다 더 깊은 산속에서 별목한 나무들을 싣고 오가는 트럭의 운전기사들이 인심쓰고 사람들을 태워주었다. 하지만 싣고 오가는 목재로 집간이 짝 차면 그런 행운조차 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어른들과 몇번 이런 차를 얻어탄 적이 있었다.

늦가을이면 시골의 우리집은 논밭에서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이 곳간과 집안팎에 가득했는데 모과로는 술을 담고 차를 만들었다. 모과차는 꿀이나 설탕에 절였다 따끈한 차로 마시면 향기롭고 특유의 맛이 좋다. 기침을 하고 천식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약효가 있다.

고향 청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오래전에 작고한 시조시인 이영도 선생님이다. 같은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선생 생존 시 만난 적이 없다. 한국문학사의 거목인 청마(靑馬)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도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 자신도 좋은 시조시인이고 상당한 안목을 갖춘 몇쟁이였다고 한다.

아주 오래전 그분이 생존해 계시는 때 한 일

간지 기자가 이 선생을 인터뷰하여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내 고향 청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중 상당부분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 기사는 이영도 선생이 고향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고, 그 곳의 가을 풍경을 감칠맛나게 서술한 것이었다.

이영도 선생은 청도의 사계절을 묘사하면서 특히 늦가을 깊은 밤이면 툭툭 모과가 풀숲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깊은 가을밤의 아름다운 서정(抒情), 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생각한다. 또 그런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준 이영도선생님께도 깊이 감사한다.

또 고향의 가을은 음력 9월과 10월 중에 행해지던 시제(時祭)를 떠올리게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조상들의 묘역에서 펼쳐지던 시제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음식을 장만하고 뒷바라지해야 했던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여성들에게는 힘든 연례행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행사였다.

이영림(한의68)

영림한방병원 원장, 여성동문회장



당시에는 이렇다 할 먹을거리가 흔치 않던 시절이라 떡이며 과일이며 견과물 등 먹을거리가 풍부한 것이 좋았다. 아이들은 시제가 열리는 묘역을 쫓아다니며 제가 끝나고 나면 암전히 잔디밭 한 곳에 모여앉아 무릎 위에 흰 수건을 얹어놓고 먹을거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주로 남자 아이들의 이야기이고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가 가져오는 나누어진 시제 음식을 먹는 정도였지만 여하튼 마을의 축제였던 것 같다.

지금처럼 냉장고도 더구나 냉동고도 없던 시절이라 생선이나 고기류 등 음식재료를 보관하는 것이 큰일이었다. 시제를 앞두고는 한 달여 전부터 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차리기 위한 이런저런 준비를 위해서 할머니와 함께 장이서는 날이면 읍내로 가셨다. 부엌방에는 제사음식 재료들이 하나 둘씩 쌓여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종손의 며느리들은 일 년 열두 달 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다.

<237호 여성동문칼럼에서 계속됩니다>

박금출(치의76)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



양치를 잘하게 만드는 세 가지 비법

※건강 특강을 연재하고 있는 박금출 동문은 입안에행복치과의원 원장 겸 치아모(내 가족과 내 직업 그리고 이웃과 치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회장으로선 엔돌핀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시와 시학 운영위원, 시 산맥 고문, 성동고등학교 경희치대모임 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오늘부터 치아를 잘 닦게 만드는 세 가지 비법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첫째, 양치하기 가장 어려운 부위는 최후방에 있는 큰 어금니들이다. 최후방 치아들을 잘 닦지 않는다면 잇몸 염증으로 인해 풍치가 빠르게 진행되어 일찍 치아를 잃게 되고 틀니를 이른 나이에 하게 된다.

둘째, 어금니가 빠진 사람들은 뇌의 퇴화에 의한 노화 촉진과 치매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로는 잇몸 염증으로 인해 만병의 원인인 혈액이 탁해진다. 이는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며 발치된 치아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각종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예로부터 치아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 한다. 틀니와 치매 그리고 암 발생이 싫다면 오늘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최후방 어금니와 치아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양치해야 한

다. (3-3-3원칙: 하루 3번, 3분 이내, 3분 동안)

1. 치아는 옆으로 세게 닦지 말고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하나씩 정성들여 천천히 부드럽게 닦는다. 양치는 때를 벗겨내듯이 강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고 먼지떨이개를 이용해 마치 이조백자를 털어주는 느낌으로 구석구석 정성껏 닦는 것이다.

30세가 넘으면 잇몸이 퇴축되어 서서히 뿌리가 노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뿌리 노출과 치경부 마모에 의한 시린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부드럽게 정성껏 양치해야 한다. 45세가 넘으면 유전적인 풍치에 의해 염증 발생과 잇몸퇴축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천천히 부드럽게 닦는 습관은 성격과 행동도 부드럽게 변화시켜 준다.

2. 칫솔은 최후방 치아를 닦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좋은 칫솔모를 선택해야 한다. 너무 오래 써서 거칠어지거나 벌어진 칫솔은 사용하면 안 된다. 1~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한 달 이내에 못쓰게 되면 너무 세게 닦는 것이다.

치약을 칫솔모 깊숙이 듬뿍 짜서 사용한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아주면 충치예방과 구취제거에 효과적이다.

3. 치아를 닦은 후 가끔씩 혀에 상처가 나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살살 털어주면 구취를 예방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텅텅한 느낌이 줄어든다. 단, 상처가 날 정도로 너무 세게 닦으면 세균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양치 후에는 물로 혀 밑과 목안까지 철저히



하게 헹구어야 한다. 이때 소금물을 사용하면 소독효과가 우수해지며 감기예방 효과까지 있다. 양치로 입안에 모든 치석과 프라그를 제거하려고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100점 보다는 90점을 목표로 하여 양치하시고 나머지 10%는 정기적인 스케링과 잇몸염증치료를 통하여 제거하는 것이 치아의 마모증과 잇몸의 퇴축증 그리고 치주염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다.





정성으로 보내주신 성금 감사드립니다

제236호 (2010년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분)

※인터넷 지로 납부 시에는 이름, 학과, 졸업횟수(또는 입학년도), 연락처 등의 납부자정보를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 경희대학교충동문회 사무처

■ 회장단분담금/협찬금/발전기금



박 찬 범(정외63)
명예회장
3,000,000원



장 현 수(상학60)
고 문
3,000,000원



김 병 목(법학64)
고 문
1,000,000원



이 창 복(상학65)
자문위원
2,000,000원



이 규 일(정외54)
자문위원
1,000,000원



맹 만 섭(법학56)
자문위원
1,000,000원



홍 현 창(법학57)
자문위원
1,000,000원



박 홍 렬(경제58)
자문위원
\$1,000



서 정 섭(법학58)
자문위원
1,000,000원



김 중 성(경기지도59)
자문위원
1,000,000원



김 재 호(경제60)
자문위원
1,000,000원



김 준 일(법학60)
자문위원
1,000,000원



박 용 수(수학60)
자문위원
1,000,000원



유 영 길(상학60)
자문위원
1,000,000원



김 용 문(법학61)
자문위원
1,000,000원



김 배 한(법학64)
자문위원
1,000,000원



서 청 석(경제64)
자문위원
1,000,000원



염 홍 철(정외64)
자문위원
1,000,000원



한 경 재(작곡64)
자문위원
2,000,000원



김 성 호(신방65)
수석부회장
6,500,000원



이 영 림(한외68)
여성동문회장
33,000,000원



이 진 곤(정외69)
사무총장
1,000,000원



김 중 필(상학58)
부 회장
1,000,000원



유 승 혁(체육64)
부 회장
1,000,000원



김 봉 일(대학원66)
부 회장
1,000,000원



김 양 호(경대원98)
부 회장
1,000,000원



안 방 수(국법원99)
부 회장
1,000,000원



김 해 정(대경원05)
부 회장
1,000,000원



김 암 생(학65)
부 회장
1,000,000원



김 행 만(상학65)
부 회장
1,000,000원



이 경 섭(한외66)
부 회장
1,000,000원



임 선 민(영문67)
부 회장
1,000,000원



조 원 경(전외67)
부 회장
1,000,000원



김 호 일(행정68)
부 회장
1,000,000원



박 창 규(정외68)
부 회장
1,000,000원



이 학 봉(경제68)
부 회장
1,000,000원



김 성 수(정외69)
부 회장
1,000,000원



박 태 용(치외69)
부 회장
1,000,000원



조 호 구(치외69)
부 회장
1,000,000원



김 호 균(행정71)
부 회장
1,000,000원



이 기 중(정외71)
부 회장
1,000,000원



허 준 영(의학71)
부 회장
1,000,000원



김 호 중(경영72)
부 회장
1,000,000원



방 철 호(영교72)
부 회장
1,000,000원



이 용 락(건축72)
부 회장
1,000,000원



박 석 태(영문73)
부 회장
1,000,000원



이 성 근(임학73)
부 회장
1,000,000원



김 일 홍(전자74)
부 회장
1,000,000원



김 정 만(정외74)
부 회장
1,000,000원



나 공 균(치외76)
부 회장
1,000,000원



염 상 국(경영76)
부 회장
1,000,000원



김 정 완(경영77)
부 회장
1,000,000원



홍 석 보(경영79)
부 회장
1,000,000원



허 상 준(법학82)
부 회장
1,000,000원



문 주 현(회계83)
부 회장
1,000,000원



박 영 석(회계86)
부 회장
1,000,000원

▶ 임원회비

※이사회비 20만원(단, 80학번 이후(학부), 61년생 이후(대학원)은 15만원)

박상만(법학57)	200,000원	송하현(법학65)	200,000원	이규욱(한의70)	200,000원	문형진(미교75)	200,000원	김문주(회계82)	150,000원	최관수(경대원90졸)	200,000원
정석국(경제57)	200,000원	이동훈(법학65)	200,000원	이창준(체육70)	200,000원	윤 혁(정외75)	200,000원	왕정한(건축82)	150,000원	유상언(경대원91)	200,000원
이병웅(법학58)	300,000원	정자화(약학65)	200,000원	고광민(정외71)	200,000원	이경우(전자75)	200,000원	정성장(정외82)	150,000원	서의석(행대원96)	200,000원
승병선(정외59)	200,000원	한정수(행정65)	200,000원	길완섭(경영71)	200,000원	임종범(토목75)	200,000원	김은기(한의83)	150,000원	안호원(언정원97)	200,000원
박부일(상학60)	200,000원	박성수(의학67)	200,000원	김덕호(한의71)	200,000원	공선식(치의76)	200,000원	이재우(경영83)	150,000원	윤성노(경대원97)	200,000원
이석우(사학60)	200,000원	박신자(정외67)	200,000원	김세준(신방71)	200,000원	김형모(의학76)	200,000원	최경혜(생물83)	150,000원	채방은(대학원97)	200,000원
권태근(체육61)	200,000원	홍사광(행정67)	200,000원	김영주(의학71)	200,000원	이운하(법학76)	500,000원	김연호(토목84)	150,000원	최병욱(교대원97)	300,000원
백우현(법학61)	200,000원	김성구(사학68)	200,000원	김일원(간호71)	200,000원	천병태(한의76)	200,000원	유명우(경제84)	150,000원	송용식(대학원98)	200,000원
윤윤섭(경영61)	500,000원	김영식(작곡68)	200,000원	조완제(전자71)	200,000원	구종대(법학77)	200,000원	김진돈(한의85)	150,000원	이성환(대학원98)	150,000원
이관홍(법학61)	200,000원	김원욱(간호68)	200,000원	최재규(법학71)	200,000원	김형준(전자77)	200,000원	박대순(법학85)	150,000원	박대병(경대원01)	200,000원
송창달(법학63)	500,000원	이영준(법학68)	200,000원	이상일(정외72)	200,000원	조경준(토목77)	200,000원	정진용(조경85)	150,000원	김선관(경대원02)	200,000원
김상수(정외64)	200,000원	김연두(의학69)	200,000원	이태수(치의72)	200,000원	정영기(전자78)	200,000원	김기철(농학86)	150,000원	김대응(언정원03)	200,000원
최순휴(법학64)	200,000원	김진호(경영69)	200,000원	이현수(전자72)	200,000원	서종식(법학79)	200,000원	이경욱(미교86)	150,000원	김명숙(경대원03)	200,000원
최영렬(체육64)	200,000원	손성호(법학69)	200,000원	조태민(건축72)	200,000원	전영대(산업79)	200,000원	강병남(경제87)	150,000원	박세진(대학원04)	150,000원
허 종(영문64)	200,000원	신영림(치의69)	200,000원	고광현(체육73)	500,000원	심화섭(산업80)	150,000원	윤덕진(경영87)	150,000원		
김성전(한의65)	200,000원	유충열(한의69)	200,000원	한균태(신방74)	200,000원	김진상(전자81)	150,000원	이경자(성악88)	150,000원		
박찬규(생물65)	200,000원	최규홍(의학69)	200,000원	고경석(한의75)	200,000원	오길중(기계81)	150,000원	송은영(의상89)	200,000원		
박현수(경기지도65)	200,000원	권오상(전자70)	200,000원	김성훈(한의75)	200,000원	정진모(물리81)	150,000원	서경민(경영92)	150,000원		
성낙준(법학65)	200,000원	윤중훈(의학70)	200,000원	김승억(행정75)	200,000원	호진후(토목81)	150,000원	장철민(경대원81)	200,000원		

▶ 평생회비

30만원

▶ 해외동문회비

김도근(테경원17)	류사현(동의원06)	박갑수(경영86)	오동재(의학77)	이준범(체육81)	최재황(법학77)	시애틀동문회	김학병(체육60)이사회비 200,000원 / 송재석(체육60)이사회비 200,000원
김진아(생물75)	민병일(화공80)	박중주(토목82)	유영길(경영84)	이흥기(치의88)	최정일(건축88)		이종완(체육70)이사회비 200,000원

연회비

2만원

【경영대학】	전운주(기계71)	서광직(환경88)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박혜선(지리74)	이신자(신방66)	김명덕(체육76)	우영국(한외81)
박원식(경영76)	정현태(기계70)		김준기(농학70)	이태영(동양어문07)	배정성(지리65)	남장현(정외77)	김문용(체육62)	이병주(한외75)
신범승(경영64)	조병근(기계71)	【문과대학】	김명종(식품공학81)	김현진(불문80)	김상수(화학80)	김대진(행정89)	김상국(체육56)	이철정(한외61)
김 범(상학58)	최영순(기계68)	최진평(국문92)	조재호(원예생명78)	박광철(영문85)	조경원(화학80)	박두웅(행정64)	김인우(체육63)	정우열(한외59)
이영욱(상학58)	한경식(기계79)		고일선(유전85)	장영미(일문81)	최재희(화학81)	유상웅(행정91)	김홍규(체육81)	최상호(한외63)
오경근(회계86)	김성수(섬유80)	【법과대학】	오석희(유전97)				백승구(체육62)	
이충렬(회계84)	성술용(섬유77)	박정웅(법학65)	이상신(유전85)	【음악대학】	【전자정보대학】	【치과대학】	서상필(체육81)	【호텔관광대학】
이희택(회계84)	이병준(섬유88)	안호명(법학85)	박강석(임학81)	이근아(기악94)	고주환(전자73)	김경락(치의79)	유병천(체육68)	장후기(관광경영84)
조용철(회계80)	최봉돈(섬유87)	이동훈(법학65)		양영일(음악60)	조용래(전자80)	윤병남(치의79)	유재춘(체육67)	전문주(관광경영88)
	김신환(토목72)	이혜우(법학60)	【생활과학대학】		30,000원	안경돈(치의69)	윤국진(체육82)	오승근(조리과학93)
【공과대학】	박동운(토목82)	정경섭(법학98)	심유선(가정67)	【의과대학】	차승일(전자89)	윤여진(치의76)	이계창(체육87)	【경영대학원】
김치교(건축81)	신승철(토목87)	50,000원	이은임(가정관리86)	김양훈(의학90)		이기홍(치의78)	이광우(체육87)	강종구(경대원01)
백승오(건축71)	유천열(토목71)	한기호(법학69)	김희연(식영78)	신필진(의학85)	【경영대학】	최재혁(치의97)	이웅기(체육65)	웅영철(경대원00)
안효명(건축82)	이춘순(토목79)		임정희(식영84)	조동환(의학68)	김장훈(경제58)		이태식(체육64)	정영화(경대원81)
오광현(건축72)	이희교(토목87)	【사범대학】	윤덕경(의상83)		윤한희(경제82)	【체육대학】	정은배(체육81)	
이성희(건축71)	조계현(토목87)	남경옥(영교94)	이선순(의상89)	【이과대학】	이 호(경제87)	하성수(체력관리65)	채화소(체육64)	
임문택(건축80)	최갑석(토목83)			임성순(물리81)	이상화(경제52)	강동호(체육60)	최종찬(체육88)	【언론정보대학원】
장세훈(건축78)	최해동(토목81)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김대학(생물93)	전재영(경제56)	강신일(체육70)	최창성(체육68)	신명균(언정원06)
황규천(건축80)	김명진(화공80)	노덕근(경영85)	김종관(약학65)	박찬규(생물65)	최동기(경제86)	강정복(체육58)	홍성수(체육90)	
김광수(기계83)	박주량(화공68)	류병길(경영80)	이기하(약학66)	송병익(생물55)	신동인(무예84)	강천원(체육68)		
김남위(기계76)	손광호(화공76)	임지창(행정81)	황현수(약학79)	임연수(생물75)	김사라(신방67)	강충웅(체육64)	【한의과대학】	
우동호(기계79)	양경수(화공66)			김주경(지리83)	김수영(신방65)	김남수(체육77)	김병현(한외54)	

2010년 제6회 총동문등산대회 협찬 내역

동문회 협찬 내역

성명	학 과	동문회직위	현 직	내 역
박찬법	정외63	명예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	100만원
이봉관	상학66	회 장	서히그룹 회장	1,000만원
장현수	상학60	고 문	(주)일양토건 회장	100만원
김성호	신방65	수석부회장	(주)제양항공해운 회장	200만원
이영림	한의68	여성동문회 회장	영림한방병원 원장	100만원
이창복	상학65	자문위부위원장	(주)유일건영,(주)유일기연 (주)EX Motors 회장	100만원
이경표	정외63	부회장	태평양웨딩부페 회장	30만원
김재인	사학69	부회장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부 전문교수	20만원
김춘진	치의70	부회장	국회의원	복분자막걸리 20박스
문주현	회계83	부회장	한국자산신탁(주) 회장	수건 1,500개
공상진	정외64	이 사	(주)에드맨 회장	모나비주스(건강식품) 3박스
김기록	행정74	이 사	(주)경희비즈넷 대표이사	홍삼숙용대보진액 30박스
장철민	경대원81	이 사	스카이프로골프 이사	하이브리드우드클럽 1점 골프웨어 2점/골프장갑2점 골프공 4세트
정운숙	행대원96	이 사	경희체대입시학원 원장	학용품 1박스
법대동문회산악회(경산회)			회장 석인환(법학65)	50만원
ROTC산악회			회장 김용겸(섬유67)	고급대자기 1점
고양시동문회			회장 오인섭(치의75)	연양갱 1,200개
12회 동기회			회장 유영걸(상학60)	30만원
경상회(상과12회)			회장 임경열(상학60)	30만원
체대 12회 동기회			회장 최호영(체육60)	10만원
65동기회			회장 윤덕보(정외65)	20만원

모교 협찬 내역

성명	학 과	동문회직위	현 직	내 역
조인원	(정외73)	명예회장	경희대학교 총장	남녀고급등산장갑 1,300개 디지털카메라 1대
박규홍			정책 부총장	상품권 30만원
김 업			서울캠퍼스 부총장	상품권 30만원
오택열	(기계70)	부회장	국제캠퍼스 부총장	상품권 30만원
배종화			경희의료원 원장	건강검진권 2매
이경섭	(한의66)	부회장	강남경희한방병원 원장	한양병종합건강검진권 2매
허주엽	(의학69)	부회장	동서신의학병원 원장	건강검진권 2매 참치캔 10set

기타협찬

(주)하이트맥주

맥주 1,500잔(시음차량,인원 포함)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발 행 인 : 이 봉 관 (중동문화장)	발 행 : 경희대학교중동문화 (재)경희대학교중동문장학회
편 집 인 : 이 진 곤 (사무총장)	주 소 : (우)110-380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15-3
편집국장 : 최 동 원 (사무처장)	전 화 : 02-744-8854~6
기 자 : 문희진	팩 스 : 02-744-0067
학생기자 : 양선희, 이등은, 유용호, 편은혜	디 자 인 : 퀴토(02-2264-6511)

www.wdoctor.com / www.worldwidedoctor.com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9-중-4893호



한 의사 서효석
(평강한의원 원장)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평강한의원

한 의사 서효석(평강한의원 원장) 1972년 경희대학교 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의학도였던 청년시절부터 36년여의 세월동안 우리 한 의학의 매력에 심취,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위협해온 아토피, 비염, 천식 등 고질병 정복을 위해 부단한 연구를 거듭해온 한 의사가 있다. 그가 바로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당시 경희대학교 한 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치료가 어렵다는 각종 고질병 퇴치를 위한 더 좋은 치료법 개발에 몰두해왔다.

36여년간의 오랜 경험과 연구, 세계를 향하다. 집념의 사나이 '서효석 원장'

"인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전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우리 한 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고자 드디어 세계 대장정(大長程)에 나섰다. 더 나은 치료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의 불을 밝혀온 서효석 원장은 2009년 1월 31일, 평강한의원 서초점 개원과 동시에 평강한의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폐기능 강화를 통한 치료로 각종 고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완치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저의 남은 생(生)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장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세계인이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전 인류가 겪는 공통된 아픔이기에 이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한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월 31일, 마침내 서초 평강한의원의 기를 잡은 서효석 대표원장은 자신이 쌓아온 36년여에 걸친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계무대를 향해 더욱 전진할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 한 의학의 우수성, 전 세계에 알리고파 ~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미국 LA와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서효석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도 그의 저서 '기적의 건강법'이 출간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 중국 대륙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 서초동 평강한의원을 기반으로 그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 첫 발을 내딛었다. 세계는 결코 자신의 분야에서 게을리 하는 자를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고 남보다 빨리 거침없이 실행해 나감으로써 어느 분야에서든 탁월한 프로이자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과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력과 끈기로 매진하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평강한의원의 서효석 원장은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마침내 일본을 향해서도 큰 날갯짓을 시작했다. 평강한의원의 한 약처방의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막

아토피, 비염 등 고질병 다스리는 화제의 '한 약'

이 열린 셈이다. 또한 평강한의원의 글로벌화의 전초 기지가 될 미국 LA에서도 평강한의원의 치료 기술을 만날 수 있다. 치료를 위해 일부러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찾아오지 않고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시대나 수년간 특정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장인이 있기 마련이다. 폐가 건강하면 알레르기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효석 원장. 앞으로 펼쳐질 서효석 원장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통해 우리 한 의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해 본다.

폐기능 향상으로 인체면역력 강화

아토피, 비염 등 고질병 다스리는 화제의 '한 약'

한 의학에서는 폐를 인체의 모든 기를 주관하고 대기와 기운을 주고받는 교환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폐(肺)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열쇠로 보는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 실제로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는 동시에 몸속의 악한 기운을 체외로 배출시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한 의학의 오랜 치료 원리다. 오장육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인 폐의 원기가 충실해지면 자연히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과 면역력이 극대화되어 각종 폐 관련 질환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평강한의원의 한 약은 이러한 한 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폐의 원기를 되찾아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만든 한 약이다.

폐(肺)의 기능저하에 의한 질병인 감기,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렴, 비염 등 호흡기에 생기는 병과 편도선염, 인후염, 중이염, 축농증, 결막염 등 호흡기 주변에 생기는 질병은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의 증상 완화에도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서원장의 주장이다. 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천식,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건선 등 폐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도 사실 알고 보면 모두 폐 계통의 질환들. 그는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 약과 호흡법을 개발해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난치로 알려진 크고 작은 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폐는 인체의 으뜸장부이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라며 폐 계통 치료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서효석 원장은 폐 기능 강화로 아토피, 비염, 천식, 편도선염을 치료해온 장본인이다. 36년여의 세월 동안 우리 한 의학의 매력에 심취해 온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앞으로 우리 한 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많은 환자들에게 질병정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질병 완치'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서초 본원의 시대를 개막한 평강한의원,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건강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서효석 대표원장의 야심에 찬 모습에서 한 의료인의 고질병 완치를 향한 뜨거운 집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음을 편(便)하게 하고
몸을 건강(健康)하게 한다.

자사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비단 기업들만이 아니다. 특정 분야를 선정, 노하우와 실력을 앞세워 자신의 브랜드 네임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호흡기 질환 및 피부질환 치료로 유명한 평강한의원도 그중 하나. 평강한 의원은 편도선염, 비염, 천식 및 아토피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평강'이라는 브랜드는 '마음을 편(便)하게 하고 몸을 건강(健康)하게 한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효석 원장이 36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약효가 보강된 평강한의원의 한 약 처방은 인체 면역력 강화와 자가치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강한 의원의 한 약은 탕약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을 위해 보존기간이 길고 운반이 쉬운 탕약과 같은 효능을 지닌 녹두알 크기의 한 약도 환자들에게 동시에 공급하고 있어 환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 서초점 : 02-518-7777
- 명동점 : 02-757-1717
- 산본점 : 031-397-7733
- 안산점 : 031-487-7773